



2022 공동 춘계학술대회

바이든 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의 변화

일시 **2022. 5. 14.** (토요일) 12:30~18:20

장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101호 (온라인 미러링 병행)

주최 한국중동학회 -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주최



한국중동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GCC 국가연구소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2022 공동 춘계학술대회

바이든 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의 변화

일 시 |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12:30~18:20

장 소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국제관 101호 (온라인 미러링 병행)

주 최 | 한국중동학회 - 단국대 GCC국가연구소 -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Program

등 록 12:30~13:00

개회식 13:00~13:30

제1세션 [정치·경제 분과]

좌장 : 오종진 (한국외대)

13:30~15:30

“아랍 주요 3개국의 잠재노동력 추정: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정 토론: 송상현 (단국대학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카타르 외교 정책의 역할”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정 토론: 남옥정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행동”

안소연 (휴스턴대학교)

* 지정 토론: 정혜선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이란 핵문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외교정책”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지정 토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후의 중동 외교정책 비교 분석”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정 토론: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휴 식 15:30~16:00

제2세션 [사회·문화·종교 언어·문학 분과]

좌장: 이인섭 (한국외대)

16:00~18:00

“문화 정책을 앞세운 UAE-이스라엘의 데탕트 전략”

정진한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 지정 토론: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유대 디아스포라와 유대인 고토 귀환의 성서 어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정 토론: 김정명 (명지대학교)

“쿠웨이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 소설 속 장소 선정의 상관관계: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을 중심으로”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정 토론: 곽순례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 터키어의 처소 논항 교체에 관한 소고”

장주영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

* 지정 토론: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화자의 페르시아어 발음 오류 분석: 자음을 중심으로”

이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정 토론: 곽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폐회식 18:00~18:20

목 차

제1세션 [정치·경제 분야]

“아랍 주요 3개국의 잠재노동력 추정: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9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카타르 외교 정책의 역할”	11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행동”	19
안소연 (휴스턴대학교)	
“이란 핵문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외교정책”	27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후의 중동 외교정책 비교 분석”	37
전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세션 [사회·문화·종교 언어·문학 분야]

“문화 정책을 앞세운 UAE-이스라엘의 데탕트 전략”	57
정진한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유대 디아스포라와 유대인 고토 귀환의 성서 어휘적 함의에 관한 연구”	73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쿠웨이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 소설 속 장소 선정의 상관관계: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을 중심으로”	87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 터키어의 처소 논항 교체에 관한 소고”	95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	
“한국어 화자의 페르시아어 발음 오류 분석: 자음을 중심으로”	103
이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세션 [정치·경제 분과]

“아랍 주요 3개국의 잠재노동력 추정: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카타르 외교 정책의 역할”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행동”
안소연 (휴스턴대학교)

“이란 핵문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외교정책”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후의 중동 외교정책 비교 분석”
견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 주요 3개국의 잠재 노동력 추정: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노다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카타르 외교 정책의 역할*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2021년 5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시작하면서 20여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9/11 테러를 시작으로 부시 대통령이 항구적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여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최장기간의 전쟁으로 기록되었다. 2002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요 전투 종료를 선언했지만, 2006년 이후 전투가 격화되면서 미국은 4만 7천명 정도의 군인을 추가적으로 파병했다. 그러나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 미군은 전쟁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게 되며 철군을 고려하였으며,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철군을 발표하고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보다 가시화되었다.¹⁾ 이듬해인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 배경에는 대중 외교정책과 중국 견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피로도 증가, 바이든 대통령의 회의론적 입장 등이 작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격화된 대중 정책과 중국 견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했던 군사력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동의 다양한 이슈에 얽혀 진퇴양난일 때 중국은 그 틈을 타 아프리카와 중남미, 실크로드와 일대일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이란과 걸프지역 왕정들까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며 미국을 위협했다. 두번째로는 장기화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쌓인 여론의 불만과 정치권 내의 갈등 해소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를 고려한다면 철군을 통한 불만 여론 봉합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회의론적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파병에 대해 회의론적 입장을 피력해왔다.²⁾ 특히 지난

* 본 연구는 현재 작성중인 논문 주제의 일부이므로 인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U.S. War in Afghanistan 1999-2021*, <https://www.cfr.org/timeline/us-war-afghanistan> (Last access, Nov. 13, 2021).

2) The conversation, *Out of Afghanistan: Joe Biden and the Future of America's Foreign Policy*, <https://theconversation.com/out-of-afghanistan-joe-biden-and-the-future-of-americas-foreign-policy-166914> (Last access, Nov. 01, 2021).

10년을 돌아봤을 때, 미국이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해당국가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리비아 공습, 시리아 공습 등의 외교적 실패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프간 철군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였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내의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 등이 철수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위해 인접국가들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 낙관적인 관점에서 탈레반을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국내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이겠지만, 아프간 북부지역의 군벌들의 반 탈레반정서와 이미 세속정치를 20년 이상 경험 한 국민들의 반발이 주변 국가로 하여금 아프간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선제조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특히 난민과 테러, 마약 등의 문제로 인해 역내 불안정성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그리고 터키와 이란까지 미국이 빠진 아프가니스탄의 부재를 여실히 느끼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카타르가 탈레반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사이의 중재자로서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며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운영,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구출작전 등을 도우며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미국인의 40%가 카타르를 거쳐 대피에 성공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탈레반 양쪽에게 모두 친분이 있는 카타르가 양측 모두에게 조율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분석들이 다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타르가 기존에 시행해 온 외교정책의 방향과, 이 정책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철수와 함께 발발한 혼란을 어떻게 중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카타르의 실용주의 외교정책 기조

카타르가 미국의 아프간 철수과정에서 역내 혼란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려면 카타르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의 기조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체제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라는 기조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작은 국가의 외교정책 역시 강대국에 의해 종속되기 때문에 이익 추구하고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에 의해 지배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편승(band wagoning)’ 혹은 ‘균형(balancing)’을 통한 잠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³⁾

카타르의 경우 두가지 전략을 모두 취하는 다소 실용주의적 노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카타르의 대(對)이란, 대(對)미국의 외교정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카타르는 줄곧 이란의 혁명의 여파와 시아파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위협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정책에 편승하는 성향을 보여왔지만, 이후 기존 GCC 국가들이 보이던 반 이란 기조와는 다른 형태로 이란과 걸프만 남부의 가스전 개발과 가스 생산량을 조율하거나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경제적 협력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과의 외교정책에서도 유사한 노선을 보였다. 카타르 정부는 1992년 미국과의 방위조약 서명, 이후 2002년에는 알 우데이드(Al Udeid)에 미국의 공군 기지를 설립하고, 아스 사일리야(As Sayliyah) 기지를 배

3) Marwan Kabalan, *Actors, Structures and Qatari Foreign Policy*, AlMuntaqa, Vol.2 (2), p.61.

치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편승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군사적인 협력 역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가 폐쇄되면서 이 기지는 미 공군의 새로운 거점기지로써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이라크 공격에 나서는 미국 공군기의 발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에 양국의 관계가 냉담해지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카타르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의 안보 군사적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역내 테러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저항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헤즈볼라와 탈레반, 하마스 등을 지원하고, 무슬림 형제단과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망명을 도우며 미국과 주변국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는 2011년 아랍의 봄과 2017년 카타르 단교 사태 발발의 원인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카타르는 이때에도 다소 도전적인 외교 노선을 보였다. 국가적 위협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소국(영토 혹은 정치적 영향력의 규모에 있어서)이 취하는 위기를 피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역내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였다.⁴⁾ 이는 주변국가와의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했는데,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정권을 타도하는 혁명세력을 지지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였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 Assad) 대통령 정권에 대항하는 시리아 혁명세력을 지지한 이란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역내 개입을 축소하려는 상황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카타르가 추구하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편승정책과 균형을 적절히 사용하는 외교정책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카타르는 이를 아랍 전역에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회로 만들었으며, 이는 리비아 내전 개입, 시리아 반군 지원, 무르시 정권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민주화를 지지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2015년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며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오랫동안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던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왕실들과 중동지역 내에서 긴장감이 상승했다. 하지만 카타르 정부에게 있어서 핵협상 타결과 제재 완화는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적 협력 및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핵협상을 지지해온 이유 역시 이에 있었다. 이러한 카타르의 행보는 주변 왕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왕정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카타르 국왕이 주변국의 반이란 정책이 부당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여러 국가들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하는 배경이 되었다. 단교 사태를 주도한 국가들은 카타르가 아랍의 봄 당시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지원하며, 유수프 알 카라다위(Yusuf al-Qaradawi)를 보호하는 카타르 정부의 지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테러리스트 지정단체와의 단절,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테러 인사 자산 동결 및 보호 조치 해제, 내정 간섭 철회 등의 13가지 조항을 제시하였으나 카타르는 이를 거부하며 단교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교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주변국들에 대한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였고, UAE와의 가스 공급 계약을 유지하거나⁵⁾ 주변국들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자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등의 단교 선언을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게 될 결정이라

4) Ibid., p.63

5) Tom Finn, Raina El Gamal, (2017). "Qatar has no plan to shut Dolphin gas pipeline to UAE despite rift", *Reut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gulf-qatar-gas-idUSKBN18X1WA>.

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결정하면서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을 조율하는데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이는 2020년 도하 협정(Doha Agreement, Agreement for Bringing Peace to Afghanistan)을 통해 철군 과정에서 미국에게 자국이 주요한 파트너임을 인지시켰을 뿐 아니라, 차기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와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3.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카타르의 역할

앞서 언급한 카타르의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 당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탈레반 양측에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카타르의 외교 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역내 신뢰하는 동맹국으로서 중동지역의 혼란을 예방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카타르는 1992년 방위조약 체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지역 내에서 미국의 전통적 군사 협력 우방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군사 무기 거래 중 평균 47퍼센트 이상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⁶⁾ 또한 미국의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인 알 우데이드 기지가 카타르에 있고, 근래에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군사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시작한 2018년 이래로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 합의를 도출 한 장소도 카타르 도하였으며, 철군 이후 탈레반이 장악한 카불에서 미국인들과 현지의 미국 협력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카타르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을 카타르로 이전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카타르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심지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카타르를 미국의 이익대변국으로 지정하는 합의를 통해 카타르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추세이다. 더불어 아프간 탈출 작전을 위해 카타르는 자체 군용기와 병력을 동원했고, 대피를 위한 공항 확보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른 피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또한 셰이크 무함마드 알사니(Sheikh Muhammad Al-Thani) 외무부 장관은 탈레반의 정치국장 몰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Abdul Ghani Baradar)를 만나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제 무대에서 아프간 사태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간 사태 발발 이후 같은 걸프 국가의 만형 격을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개입 수준을 비교해봤을 때 카타르의 행보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의 국가들과 단교하는 등 주변국과 단절됐었던 외교관계를 생각해보면 눈에 띄는 변화이다. 카타르는 테러단체를 후원한다는 주변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정치 세력의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2013년 도하에 탈레반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로 카타르는 비공식적 탈레반의 후견인 역할을 도맡아 왔다. 물론 이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염두에 둔 미국의 정치적인 수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로서는 탈레반 사무소 개설과 핵심 인사 수용 등이 단교사태를 초래하는 정치적 외교적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6) Pieter D. Wezeman, Alexandra Kuimova and Siemon T. Wezeman,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0, Sipri, 2021.

제무대에서 자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과거 UAE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내의 탈레반 점령을 인정해왔으나,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 요청을 거부한 탈레반에 대해 2001년 이후 관계를 단절한 상태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왔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탈레반의 반정부 성향이 왕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왕족들과 근본주의 성향의 성직자들이 탈레반을 암암리에 지원하며 온건주의 이슬람을 지향하고 있는 왕정의 위협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 역내 강대국으로써 면모를 선뜻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카타르는 오랫동안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을 포용하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탈레반과 협력해왔다. 오랫동안 반정부/반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하마스와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정치 세력에게 카타르 왕실은 거처를 제공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주며 국제 사회에서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이슬람 정치세력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서방 국가들, 특히 중동 문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걸프 왕실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인 이란과도 사우스 파스(South Pars) 가스전을 공유하며 경제적으로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등, 기존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카타르는 미국과 역내 안보 협력 강화, 이란과의 교류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 알 올라 회담 이후 GCC 복귀를 통한 왕실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 이슬람 세력 포용을 통한 전방위적 영향력 확대 및 알 자지라를 통한 홍보 등 다방면에서의 실리를 챙기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카타르 외교 정책 전망

아프가니스탄은 난민 문제에서부터 테러 등, 주변국가들과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의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중재하고 대화의 창구 역할을 맡게 된 카타르의 역할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실용주의적 외교정책 노선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카타르가 유지해왔던 서방에게 ‘유용한’ 국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탈레반과 국제 사회 사이의 중재자 역할과 보수적인 이슬람 세력의 수호자 역할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프가니스탄의 위기는 카타르에게는 기회이자 카타르 단교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중동을 사이에 두고 안보 문제로 늘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국내 안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탈레반과 반 탈레반 집단, 혹은 탈레반과 IS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변국가의 긴장은 급속도로 고조될 것이고, 이는 카타르가 오랜 기간 공들여왔던 이슬람 정치 세력과의 공존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카타르 역시도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두었던 카타르 왕실은 탈레반을 설득, 혹은 압박을 통해 탈레반을 최소한 공존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아프가니스탄 국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단교 사태 이후 자국의 안보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다소 침전되어 있던 자국의 영향력을 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로 확대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논문 및 보고서>

- 강봉구(2005), 편승과 균형: 21세기 세계정치와 러-미관계, 국제정치논총, 45집 3호, 263-285.
- 김관옥(2012), 현실주의 외교안보전략으로서의 연성편승정책 -일본, 인도, 호주의 사례-, 대한정치학회 20권 1호, 153-174.
- 김정곤, 허재철, 손성현 외(202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KIEP, 제48권 4호, 1-21.
- 인남식(2017). 대(對)카타르 단교 사태에 따른 걸프 역학관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IFA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6, 1-20.
- 인남식(2018).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정세와 정책, 제341호 8월호, 1-5.
- Anthony H. Cordesman, Grace Hwang (2021). The Changing Security Dynamics of the MENA Region,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analysis/changing-military-dynamics-mena-region>
- Anna L. Jacobs, (2021). Qatar's Reg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fter Al Ula, *The Arab Gulf State Institute in Washington*, <https://agsiw.org/qatars-regional-relations-and-foreign-policy-after-al-ula/>
- Betul Dogan-Akkas, (2021). A Securitization Approach to Qatar's Foreign Policy Making, *Asian Journal of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 Vol.15(4). 536-553.
- Marwan Kabalan, (2019). Actors, Structures and Qatari Foreign Policy, *Arab Center for Research & Policy Studies*, 61-82.
- Pieter D. Wezeman, Alexandra Kuimova and Siemon T. Wezeman, (2021).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Sipri*, 1-12.
- Victor Gervais, The Changing Security Dynamics in Impact on Smaller Gulf Cooperations' alliances, *Routledge*,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1315619576-3/changing-security-dynamic-middle-east-impact-smaller-gulf-cooperation-council-states-alliance-choices-policies-victor-gervais?context=ubx>
(Dec. 1, 2020).

<기사>

- 정영교, (2021). “아프간 사태로 몸값 띄운 카타르- 미 국무 국방 “고맙다” 방문. *중앙일보* (Sep. 06, 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771> (Search: Apr. 23, 2022).
- Andrew Mumford, (2021). “Out of Afghanistan: Joe Biden and the Future of America's Foreign Policy”, *The Conversation* (Aug. 31, 2021),
<http://theconversation.com/out-of-afghanistan-joe-biden-and-the-future-of-americas-foreign-policy-166914> (Search: Nov. 01, 2021).
- Giorgio Cafiero, (2022). “The Mood In Post-Blockade Qatar”, *The New Arab* (Apr. 06, 2022),

<https://english.alaraby.co.uk/analysis/mood-post-blockade-qatar> (Search: Apr. 18, 2022)

Khalid Almezhini, (2020). Gulf Small States' Reactions and Strategies Towards Iran, The Institute of Emergency Economics, https://jime.ieej.or.jp/en/report_text.php?article_info_id=11293

Mohammad Salami, (2021). "Navigating Influence in Afghanistan: The Cases of Qatar and Pakistan", *Washington Institute*.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navigating-influence-afghanistan-cases-qatar-and-pakistan> (Search: Nov. 3, 2021)

Steven A. Cook, (2022). "America's Middle East Friendships Are Dying a Natural Death",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2/04/08/americas-middle-east-friendships-are-dying-a-natural-death/> (Search: Mar. 3, 2022)

Tom Finn, Raina El Gamal, (2017). "Qatar has no plan to shut Dolphin gas pipeline to UAE despite rift", *Reut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gulf-qatar-gas-idUSKBN18X1WA>. (Search: Mar. 11, 2022)

Zachary Laub and Lindsay Maizland, (2021). "The U.S. War in Afghanistan 1999-202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timeline/us-war-afghanistan> (Search: Nov. 13, 2021)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서의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행동

안소연 (휴스턴대학교)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서의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행동

안소연

University of Houst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논문 개괄

1. 연구 동기

- 아랍의 봄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쓸 당시 선거를 권위주의의 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국가들 대부분은 정권 몰락을 경험함

2. 연구 특징

- 시민들이 선거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권위주의 선거의 효용성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식함

*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국가차원의 지표 (투표율, 시민 자유 지표 등)에 기반한 연구를 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Afro Barometer 및 Arab Barometer 설문 조사를 통한 개인적 지표에 기반하여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서의 시민의 정치적 행동 및 인식을 분석하는데 기여함

지속적인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서의 시민들의 투표 행동(voting behavior)의 변화

1. 주요 질문

-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학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반복되는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가 시민들의 투표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가?

문헌연구

권위주의 체제 공고화

(Cox 2009; Geddes 1999; Lust-Okar 2006; Blaydes 2014)

-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도권 정치로 끌어 들여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 정책 대결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정실주의 (Patronage relationship) 혹은 후견주의 (Clientelism)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
-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국제적 지지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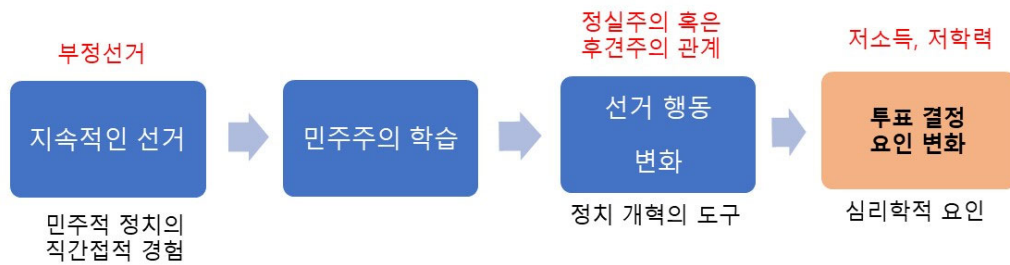
VS

민주화로의 전환

(Howard and Roessler 2006; Donno 2013, Lindberg 2006; Miller 2015)

- 야당 세력의 견고한 연합은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의 자유화 (liberalization)에 기여
-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선거 경험은 민주주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
-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지속적인 선거 경험은 사회에 민주주의 가치를 심어주고 민주시민성 (democratic citizenship) 함양을 통해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기여

이론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의 채택이 이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선거 횟수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다양한 정치적 변동을 겪을 수 있으나, 연속적인 선거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민주화 학습에 기여함

가설

가설 1.1. 권위주의 국가 선거 횟수가 증가할 수록 시민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정치적 관심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권위주의 국가 선거 횟수가 증가할 수록 시민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정당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권위주의 국가 선거 횟수가 증가할 수록 시민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민주주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다양한 정치 변동 속에서도 지속적인 선거는 투표 결정 요인을 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연구 방법

1. 데이터

- 국가: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 데이터: Arab Barometer waves 2 (2010-11), 3 (2012-14), 4 (2016-17), 5 (2018-19)

2. 변수

- 종속 변수: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여부
- 독립 변수: 누적 선거 수, 정치적 관심, 정당 소속감, 민주주의 가치 지지

3.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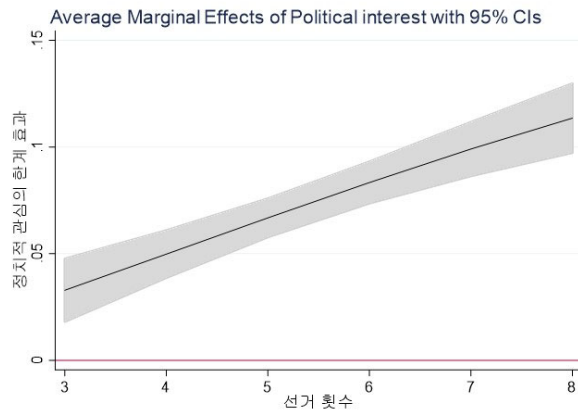
- 누적 선거 횟수 × 정치적 성향 (정치적 관심, 정당 소속감, 민주주의 가치 지지) 교호작용 (interaction effect) 모델
- 각 국가별 투표 참여 결정요인 변화 비교

연구 방법

2000년 이후 각 국가별 누적 선거 횟수

	Wave 2 2010-2011	Wave 3 2012-2014	Wave 4 2016-2017	Wave 5 2018-2019
Algeria	4 elections	5 elections	6 elections	7 elections
Egypt	3 elections	5 elections	7 elections	8 elections
Tunisia	4 elections	5 elections	7 elections	7 elections
Morocco		3 elections	4 elections	4 el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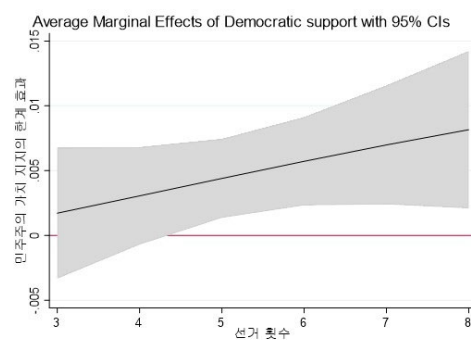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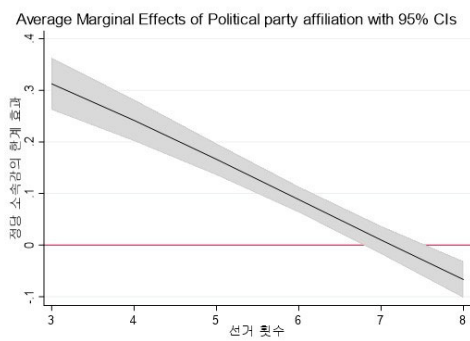
연구 결과



회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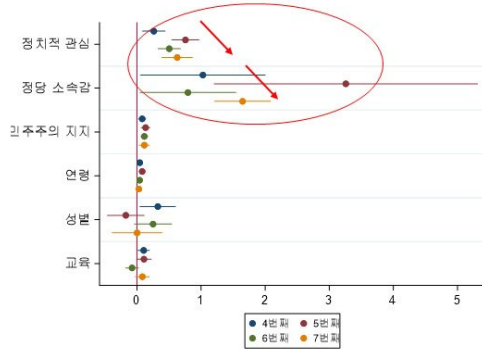
1. 권위주의 국가에서 선거 횟수가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심이 시민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함
2. 반면, 정당 소속감이 시민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 횟수가 증가할수록 줄어듦
3. 민주주의 가치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함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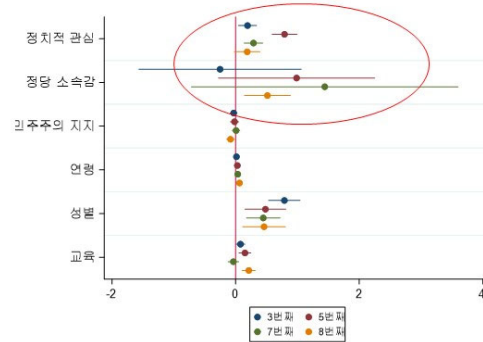


연구 결과 (국가별)

알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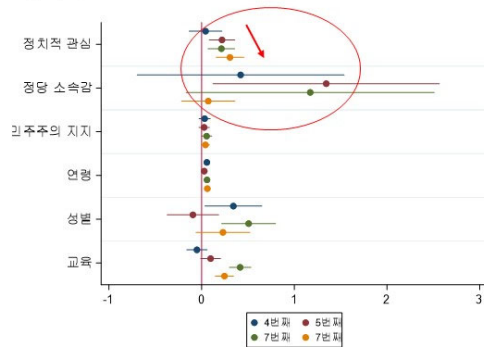


이집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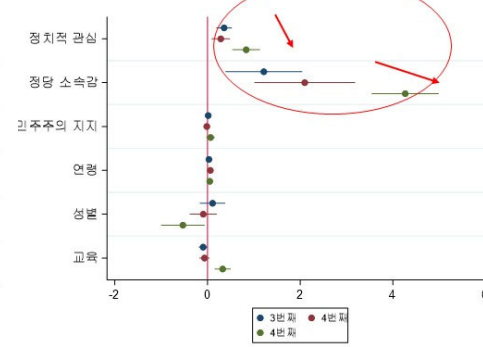


연구 결과 (국가별)

튀니지



모로코



결론

1. 본 연구는 반복적인 권위주의 국가 선거 경험을 통한 시민들의 투표 행동 변화 추적에 기여함
2. 반복적으로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시민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3. 따라서, 이번 연구는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가 항상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시킴

참고 문헌

- Daniela Donno, "Elections and Democratization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 no. 3 (July 2013).
- E. Lust-Okar, "Elections under authoritarianism: preliminary lessons from Jordan," *Democratization* 13, no. 3 (2006).
- Gary W. Cox, "Authoritarian elections and leadership succession 1975-2004," *APSA 2009 Toronto Meeting Paper*, (October 2007).
- Geddes, B. (1999, September). Authoritarian breakdown: Empirical test of a game theoretic argument.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Vol. 2).
- Lindberg, S. I., & Lindberg, S. (2006). *Democracy and elections in Africa*. JHU Press
- Lisa Blaydes, *Elections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Mubarak's Egyp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Marc Morjé Howard and Philip G. Roessler, "Liberalizing Electoral Outcomes in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no. 2 (April 2006).
- Miller, M. (2015a). Democratic pieces: Autocratic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815.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no. 3 (2015).

감사합니다

이란 핵문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외교정책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22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이란 핵문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란 외교정책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목차

1. 이란의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
2. 하타미 정부 시절 이란의 핵개발 의혹
3.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핵개발 정책
4. 로하니 정부의 핵협상 타결
5.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
6. 라이시 정부의 핵합의 복원 협상
7.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란 외교정책

1. 이란의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

- 팔레비 왕조 시절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이란은 1957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함.
- 1967년 미국의 지원으로 테헤란 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함.
-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은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중단함.
-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반 재개되었음.

2. 하타미 정부 시절 이란의 핵개발 의혹

- 이란 핵문제는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중부 나탄즈(Natanz)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아락(Arak) 지역의 중수 생산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불거졌음.
- 2004년 9월 하타미(Mohammad Khatami)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2. 하타미 정부 시절 이란의 핵개발 의혹

- 2004년 11월 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는 보고서(GOV/2004/83)를 통해 이란의 은폐정책이 2003년 10월까지 계속된 점을 지적하며 이란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함 (Iran' s policy of concealment continued until October 2003, and has resulted in many breaches of its obligation to comply with that Agreement).

3.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핵개발 정책

- 이란과 서방세계의 갈등은 2005년 6월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고조되기 시작하였음.
- 핵주권을 재천명한 이란은 2006년 1월 핵개발을 재개함.
-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네 차례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UNSCR 1737, UNSCR 1747, UNSCR 1803, UNSCR 1929)을 채택하며 제재 강도를 높임.

3.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핵개발 정책

- 미국은 2010년 7월 이란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배제시키는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을 발효시킴.
- 유럽연합도 2010년 7월 에너지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이란 제재안을 승인함.

4. 로하니 정부의 핵협상 타결

- 2012년과 2013년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7.4% 와 -0.2% 였음(출처: IMF).
- 로하니(Hassan Rouhani) 정부는 이란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 이란의 핵협상 창구는 최고지도자 직속기관인 국가안보최고회의(SNSC)에서 대통령 산하의 외교부로 바뀌었음.

4. 로하니 정부의 핵협상 타결



출처: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JCPOA-at-a-glance>

-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됨.
- 2015년 -1.3% 였던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과 2017년 13.4% 와 3.8% 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음(출처: IMF).

5.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

- 2017년 취임한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란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몰조항 폐지를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제한 규정이 핵합의에 담기지 않은 점도 비판함.

5.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



출처: <https://www.armscontrol.org/act/2019-06/focus/trumps-failing-iran-policy>

- 미국은 2018년 5월에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같은 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복원함.
- 2018년과 2019년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6.0%와 -6.8%였음(출처: IMF).

6. 라이시 정부의 핵합의 복원 협상

- 이란과 P5+1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은 2021년 6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되었지만 로하니 정부는 핵합의를 복원하지 못함.
-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2021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란 라이시(Ebrahim Raisi) 대통령은 핵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음을 밝혔음.
-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핵합의 복원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힘.

6. 라이시 정부의 핵합의 복원 협상

- 2022년 3월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재파기에 대한 안전장치와 이란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조직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7.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란 외교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시사함.
-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말리(Robert Malley) 이란 특사 모두 과거 이란 핵합의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임.

7.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란 외교정책

-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정책은 오바마 대통령과 유사하게 중동 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원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후의 중동 외교정책 비교 분석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전-후의 중동 외교 정책 비교 분석

바이든 정부가 중동에서 직면한 문제 이해

건 하 산 (HASSAN, GEON)



목차 (CONTENTS)

- 서론
- 이란 핵 합의, 포괄적인 공동 행동 계획 (JCPOA)
- 중동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
-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자의 중동 정책 비교
- 결론

서론(INTRODUCTION)

- 바이든 시대의 중동 외교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 그는 전임자와 비교하여 중동내 미국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이란 문제의 재개입과 예멘 전쟁을 종식 시킬것인가?

EXPORTERS AND IMPORTERS OF MAJOR ARMS, 2016-2020

The Main Exporters and Importers of Major Arms

	Exporter	Global share(%)	Importer	Global Share (%)
1	USA	37	Saudi Arabia	11
2	Russia	20	India	9.5
3	France	8.2	Egypt	5.8
4	Germany	5.5	Australia	5.1
5	China	5.2	China	4.7
6	UK	3.3	Algeria	4.3
7	Spain	3.2	South Korea	4.3
8	Israel	3	Qatar	3.8
9	South Korea	2.7	UAE	3
10	Italy	2.2	Pakistan	2.7

Imports of Major Arms, by Region

Recipient Region	Global Share (%)
Africa	7.3
America	5.4
Asia-Oceania	42
Europe	12
Middle East	33

* Data Source : SIP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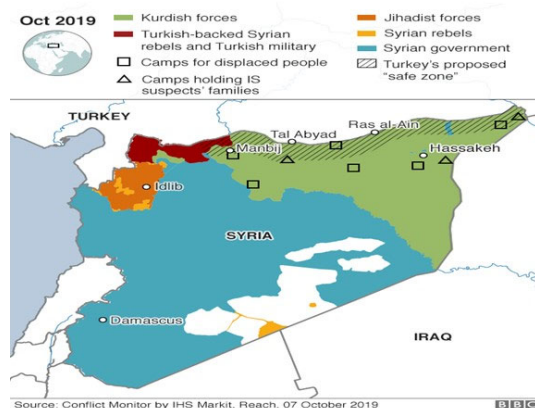
이란 핵 합의, 포괄적인 공동 행동 계획 (JCPOA)

-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 이란의 핵잠재력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룬 5+1 협정을 이끌어 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불이행
-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UAE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상 결정에 유감 표명
-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일함 (*핵확산 방지, 이란의 미사일 기술개발 제한, 중동에서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 الحرس الثوري الإيراني) 역할 축소 등이 포함)
- 바이든 현 정부는 계속하여 *반이란 동맹* 지지
- 이란 정권과 극단주의 이슬람 유대 관계 중지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 (SYRIA, سوريا)

- 2015년부터 미군은 시리아에 주둔하여 IS 테러조직에 맞서 싸우는 현지군 지원
- 현재 약 900명의 미군이 시리아에 잔류
- 미국은 시리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억 9,600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인도적 지원을 발표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1)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 (IRAQ, العراق)

- 2019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주요 역할은 이란 감시
- 2020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국 감축 계획 발표
(현, 약 2500명의 미군 병력이 남아있음)
- 이라크 정권의 안정 유지
- 이라크에서 이란의 작전 통제



DONALD TRUMP VS JOE BIDEN

*Similarity

- 미국의 주둔 군사 개입에 대한 지출 감소
- 중동에 대한 정부의 대테러 정책
- 바이든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고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 주둔

*Differences

- 트럼프 전 정부의 시리아내 미군 철수를 발표,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시리아내 Non-State actors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
- 인권 외교는 비용 효율적인 전략으로 간주

중동내 주요 친미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 미국은 중동내 두 국가에 주요 동맹국
 <사우디 아라비아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이스라엘 إسرائيل>
- 트럼프 전 정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원함으로써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지출 감소 예상
- 바이든 전 정부는 미국의 중동 수축 정책과 중동내 발언권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오랜 친미 국가들에게 의존하도록 강조
- 바이든 전 정부는 이스라엘 지역문제, 특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함



*Abraham Accords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걸프 동맹국 중 하나
 <*JCPOA의 가능성은 불확실>
-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사우디 내부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 *But*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적 힘의 발현은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결론 (CONCLUSION)

- 바이든 현 정부는 전임자와 동일하게 아브라함 합의 이행과 아랍권 국가들과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
- 트럼프 전 정부의 접근 방식과 달리 바이든 현 정부는 다자간 협력 틀과 인권 도전이라는 두 가지 우려에 초점
- JCPOA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여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이름으로 비국가 동맹국 지지
- 예멘 갈등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사우디 동맹을 재편성하도록 압력
-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이란의 핵문제는 주요 관심사
- 바이든 정부의 중동 인권 전략 접근은 미국-사우디 관계 악화 기여 (Ex. 예멘과 시리아 지원)

감사합니다.
THANK YOU
شكرا جزيلا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East before and after Joe Biden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Facing Biden Administration in the Middle East

Geon Hassan

1. Introduc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Biden's first year in office and employed a comparative analytic approach to assess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Biden's foreign policy and that of his predecessor in the Middle East. How a renewed American commitment to international involvement may aid in resolving Middle East issues and determining how Biden is dealing with th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on matters such as human rights, Yemen's civil war, and the Iran nuclear accord. Biden want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world, but the United States will be less likely to take unilateral action or employ force to cope with its adversaries. Only with the help of allies in the area and throughout the globe will the United States be able to undertake the numerous efforts required to meet the Arab states' urgent security concerns while also advancing human rights.

1.1. Questions and Hypothesi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Biden's foreign policy prospects in the Middle East.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d the following:

- 1) What will Joe Biden's Middle East foreign policy objectives be?
- 2) How does he deal with the U.S allies in the Middle East differently from his predecessor?
- 3) Will Biden follow through on his campaign pledges and re-engage with Iran, will he end the Yemen war?

More than a year had passed since Joe Biden's inauguration on January 20, 2021, many scholars have been debating America's Middle East policy direction and many had speculated it in many different ways.

Arabs are not different, they are looking on as Washington continues to debate the U.S. role in the region. Especially after the U.S.'s sudden pull out of Afghanistan on 31, August 2021.

States view their actions in foreign policy through the lens of national interests, but their choices depend on leaders' perceptions and how they choose to define and pursue national interests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De Mesquita & Lalman, 2008: 53-54). Presidential decisions do not just center on national interests but also have moral reasoning. U.S. foreign policy has always wavered between globalization and retrenchment (Nye, 2020: 210). The state has no right to let its moral disapprobation of the violation of liberty get in the way of successful political action. Realism considers prudence to be the supreme virtue in politics" (Morgenthau, 2014: 53). However, the organizing principle of U.S. ME policy has changed to containing Iran regardless of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this policy on the region (Yazdani & Hussain, 2006: 268). Joe Biden has vowed to change this pattern of policy, he has decided to do routine foreign policy that includes the points he mentioned in the following points of his speech.

- Maintaining our ironclad commitment to Israel's security, and seeking further integration with its neighbors while promoting a viable two-state solution.
- Working with our regional partners to deter Iranian aggression and threats to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 Disrupt al-Qaeda and related terrorist networks and prevent an ISIS resurgence,
- Address humanitarian crises, and redouble our efforts to resolve the complex armed conflicts that threaten regional stability.
- We do not believe that military force is the answer to the region's challenges, and we will not give our partners in the Middle East a blank check to pursue policies at odds with American interests and values. That's why we have withdrawn U.S. support for offensive military operations in Yemen and backed UN efforts to end the war. Our aim will be to de-escalate regional tensions and create space for people throughout the Middle East to realize their aspirations" (Biden J.R, 2021: 11).

1.2 Methodology overview

This paper uses comparative research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contrasts between the Biden's administration and his predecessors' Middle East policies on three fronts: The Iranian nuclear problem,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Middle East, and the allies' relations, finally will show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rump and Biden's Middle East policy and will aid future research on US Middle East policy,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ntent of Middle East policy during the Trump and Biden periods. The paper has relied mainly on secondary sources such as news and published academic journals to do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paper used mix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scriptive data to draw

the conclusion.

Parts one and two include the introduction and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part three will deal with the methodology and results, and Part four will contain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2. Literature Review

2.1 The Middle East's Strategic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Despite two reasons that have continuously affected American policy in the reg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eding American administrations and Arab nations, especially in the Gulf has been unstable. The region has remained relevant to the United States across successive administrations because of its known energy reserves and the extent to which some countries in the area have become significant arms importers. Since the late 1960s, US presidents have issued a number of doctrines underlining the country's commitment to ensure regional stability. Republican presidents have maintained close connections with Gulf monarchies and have been attentive to their security concern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successive administrations have provided its Arab Gulf allies with highly modern US weaponry. US arms exports accounted for 37 percent of the global total weapon export. Almost half (47 percent) of US arms exports went to the Middle East between 2016 and 2020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20: 15).

Table 2. 1.1 Main Exporter Importer and Exporter of Major Arms, 2016–20

		Global share(%)	Importer	Global Share (%)
1	USA	37	Saudi Arabia	11
2	Russia	20	India	9.5
3	France	8.2	Egypt	5.8
4	Germany	5.5	Australia	5.1
5	China	5.2	China	4.7
6	UK	3.3	Algeria	4.3
7	Spain	3.2	South Korea	4.3
8	Israel	3	Qatar	3.8
9	South Korea	2.7	UAE	3
10	Italy	2.2	Pakistan	2.7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20

Table 2.1.2 Imports of Major Arms by Region

Recipient Region	Global Share (%)
Africa	7.3
America	5.4
Asia-Oceania	42
Europe	12
Middle East	3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20

There were seven states with active armed conflicts and 14 multilateral peace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in 2020 the same number as in 2019. (SIPRI, 2021). Previous US administrations have attempted to utilize military sales to strengthen their allies' capacities in order to promote significant US regional security policy targets including counter-terrorism, maintaining a continuous oil supply, and combating Ir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Saudi arms imports increased by 130 % over the years (2016-2020), accounting for 11 % of global arms imports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20).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example, despite its concer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fered Saudi Arabia more than \$115 billion in weapons, more than any administration in the preceding 71 years (Borger, 2016). President Donald Trump treated Saudi Arabia as a major ally in their campaign to cripple Iran through sanctions. To that end, “Pompeo used emergency powers to sidestep Congress to keep arms supplies flowing to the Gulf” (Borger & Wintour, 2021). In November 2021 Biden’s government had approved a \$650m sale of air-to-air missiles to Saudi Arabia (aljazeera.2021).

Trump's economizing strategy plainly demonstrated that American foreign policy had been influenced from the inside by the emergence of populist politics that restricted the country's moral perspective, which had far more impact than shifting power relationships among major nations (Cooley & Nexon, 2020: 159). A lack of respect for other cultures and religions by the U.S. has arguably caused administrative rifts and weakened soft power, undercutting national interests (Nye, 2020: 50). Finally, by imposing sanctions on non-compliant countries while selling sophisticated arms to U.S. allies in the region, Trump exacerbated “the very factors that have caused regional instability” (Parsi, 2021: 3). It has been contended that the American decision to scale down their engagement in the Middle East has paved the way for another actor’s resurgence (Trenin 2017: 2-3).

Biden took office in a divided country, with over 400,000 people killed by the coronavirus epidemic. (Wehner, 2021) a devastated economy with the lowest employment record in contemporary US history (at 6.9%).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Biden has more than 38 years of government experience and is

well-liked by members of Congress from both parties. As Vice President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2009-2016) he was entrusted with advancing arrangements with Congress. Trump's legacy of polarization, and degradation of the American political process, foreign policy errors have damaged Biden's chances to recognize and avoid global challenges, but isolation is not a viable alternative.

Biden's approach to Arab partners should be a rebalanced one between American beliefs and interests to those of the Arabs. Biden has promised a democratic, progressive foreign policy, in contrast to his predecessor's conservative isolationist attitude, which drew support from the US extreme right.

2.2. Stability Challenges that face Biden in the Middle East

The region has progressively become more unstable and violent under US military hegemony. In 1998, the region suffered from five armed conflicts. By 2019, 22 violent struggles had engulfed the area (Parsi, 2021). The GCC was unable to avert internal conflicts, resulting in a blockade of Qatar by Saudi Arabia, Egypt,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Bahrain from 2017 to 2020. That disagreement was ultimately addressed in December 2020 during the Al-Ula Summit in Saudi Arabia, which the U.S. applauded. However, The Saudi decision to reconcile occurred as a resul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resolve to end his presidency with a high note in terms of foreign policy, as well as new Saudi policy goals centered on the need to convey favorable messages to the future government in Washington.

Biden has pointed out that the relationship should advance U.S. interests as well as be respectful of the values that "we bring to that partnership" (Turak, 2021). Biden has talked about breaking the impasse in US-Iran relations, ending unconditional support from Arab Gulf allies, lowering military supplies to the region, increasing pressure on Yemen to end the crisis, and promoting regional human rights. Biden has been taking a more structured approach to the U.S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by using routine channels, as evidenced by his meeting with King Salman on February 25, 2021, while MBS, the de facto ruler, received a call from US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earlier that day. Foreign policy, on the other hand, isn't simply about "virtue signaling"; it's also about furthering interests. (Haass, 2021) this helps to understand why the United States does not want to terminate ties with Saudi Arabia. Washington relies on the Saudis to help it achieve its strategic objectives in the area, which include fighting Iran, giving counterterrorism support, ending the Yemen conflict, assisting Arab nations financially, mending Arab-Israeli ties, and discrediting extremist Islamist doctrines. (Ross & Satloff, 2021: 3-5). This preference for more balanced and transparent relations is also evident in Biden's decision to make public the intelligence report revealing MBS's approval of the operation that led to the murder of journalist Jamal Khashoggi; however, Biden chose not to sanction the Crown Prince on the advice of his national security team because the cost was too high. (Sanger, 2021).

3. The Iran Nuclear Deal,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Obama led a 5+1 coalition that achieved an agreement in 2015 to restrict Iran's nuclear potential, but Trump eventually defaulted. Israel,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expressed their displeasure with Obama's decision to negotiate a nuclear deal with Iran without consulting them. Saudi de-facto leader Prince Mohamed Ben Salman; also known as MBS slammed Obama for abandoning his Gulf Arab friends, claiming in an interview with the Atlantic that Obama's conversations with Iran while preserving the Saudi relationship was a betrayal. (Hope & Scheck, 2020: p. 147).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with respect to Iran's nuclear capacity was seen by both Saudi Arabia and the UAE as a move in which the US relinquished its position as a counterbalance to Iranian dominance. As a result of Trump's pullout from the JCPOA, US military presence in the Gulf has expanded, while Iran's uranium enrichment program has altered as a result of its tougher sanctions. The killings of the Revolutionary Guard Commander, Qassem Soleimani, in January 2020, and Mohsen Fakhri Zadeh, a top Iranian nuclear scientist, in November 2020 have enhanced the Iranian government's dedication to this project. Iran began to break the conditions of the nuclear deal. Despite being mandated under the accord to keep enrichment below 4%, it informe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of its plan to enrich uranium to a purity of up to 20%. (Murphy, 2021).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its will to re-engage with Iran in the 5 + 1 nuclear deal. However, any such re-engagement is conditional on Iran's adherence to the JCPOA, before any communic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Sink, 2021). The U.S.'s European allies, Israel, and the GCC countries would like to include Iran's missile capability and Iran'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in any future negotiations. In general,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governments want to be contacted and included in any fresh discussions regarding Iran's nuclear program. Biden's administration has also been easing financial restrictions to allow Iranian oil sales to support IMF lending to Tehran and lifting some sanctions that have blocked international efforts to bring aid to Iran in the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adhams et al., 2021). The new American proposals came simultaneously as UN special envoy to Yemen Martin Griffiths' first visit to Iran on February 7, 2021, to ensure Iran's support for a peaceful settlement to Yemen's prolonged conflict. Negotiations have restarted and an indirect US-Iran dialogue has begun as a resul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tactics.

Despite the fact that Biden's Middle East policy differs from Trump's in terms of content, Biden's approach to the Iranian nuclear crisis, like Trump's, is centered on domestic political needs. Biden reflects Trump's views on US nuclear interests in Iran, which include avoiding nuclear proliferation, restricting Iran's development of missile technology, and reducing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role in the Middle East. Biden's administration continues to back the Trump administration's Middle East Strategic

Alliance (Anti-Iran alliance)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Un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Biden believes that multilateral cooperation is still a viable policy tool for maintaining U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at a low cost, despite the region's strategic shrinking.

3.1. The U. S Foreign Policy on Syria and Iraq

Since 2015, US soldiers have been in Syria assisting local forces in their fight against the ISIS terrorist organization. Despite previous President Trump's repeated attempts to evacuate them, around 900 US forces remain in Syria. A rocket strike last month injured four US troops. Whether the countries return to the 2015 Iran's nuclear agreement, the situation implies Iran's proxies will continue to harass US soldiers in the region (Szuba, 2022). Human rights are being us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Syria as a means of supporting non-state actors other than military engagement. According to China and Russia, the plan was a covert help to Syrian rebels, so the proposal was rejected by China and Russia. Despite the veto of China and Russia, on 2021 March 30, the U.S. unveiled "more than \$596 million in new humanitarian assistance to respond to the Syrian crisis"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1)

The major role of US soldiers in Iraq in 2019 has shifted to monitoring Iran, especially after Baghdadi was assassinated by US forces. In an interview with CBS, Trump stated that the US military should remain in Iraq, not just to fight ISIS, but also to keep an eye on Iran. As of September 2020,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its plans to reduce troop levels in Iraq from 5200 to 3000 (MODEL DIPLOMACY, 2020). The US is still grappling with two fundamental issues: the first is sustaining the Iraqi regime's stability and the second is controlling Iran's operations in Iraq. As a result, regardless of the changes, the number of US soldiers in Iraq will always be substantial, and the long-term military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the Iraqi government will be kept to protect US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ollow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ic contraction. Similar to the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reduce expenditure on the United States' Middle East military involvement.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inherits the Trump government's anti-terrorism policy in the Middle East. Fin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inherits Trump's idea of a strategic hedge against Iran. Despite the fac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withdrawing from Afghanistan, it has demonstrated no readiness to leave Syria or Iraq. In Syri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mphasizing non-state partners. In contrast to Trump's decision to pull out from Syria, Biden values the views of the US' non-state actors in Syria and sees them as vital forces in defeating terrorists and Shia militias, as well as significant forces in the post-civil war, split of power in Syria. Biden regards human rights issues as the basic logic of US intervention in the Middle East (Biden, 2020). Human rights diplomacy is also seen as a cost-effective policy strategy for sustaining U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and assisting non-state allies in the region.

4. The U. S Foreign Policy toward Main Allies in the Middle East

In terms of U.S. interests and geopolitics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has two major "allies" in the region: Israel and Saudi Arabia (Pillar, 2021). On December 06, 2017,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ould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and moved the embassy to Jerusalem. However, Trump's actions have not been opposed by Arab countries at the national level (Diwan, 2017). Despite the fact that many members of the US Congress have urged for Riyadh to be punished and the relationship to be reassessed in the wake of Khashoggi's murder, the Trump administration retained a close connection with Saudi Arabia. The Trump administration believed that by supporting Israel and Saudi Arabia, it could be able to reduce US spending in response to the danger posed by Iran. Trump, in particular, believed that arms sales will cover a major portion of these costs.

Trump On the one hand, in order to keep his Middle East contraction policy, forced the US to rely on its old Middle Eastern friends in order to retain its utterance influence in the region. These historic allies, on the other hand, symbolize the United States' obligation to uphold the interests of these allies to some extent. Biden, on the other hand, claimed in his campaign platform that his foreign policy would be a significant change from that of Trump, promising to prioritiz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his foreign policy (Haltiwanger, 2021).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to keep out of Israel's regional affairs, notably the conflict with the Palestinians. When the Palestinian-Israeli crisis erupted on May 10th, the Biden administration had no response. Biden lacked initiative and was unwilling to take tangible actions despite claiming to support a two-state solution. While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continues, the Biden administration approved a \$735 million arms sale to Israel (Zengerler, 2021).

Biden's foreign policy with Saudi Arabia is a bit of a mixture. On one side, Saudi Arabia remains a key regional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expects to continue the JCPOA discussions, Saudi Arabia remains one of the United States' most significant Gulf allies, therefore the JCPOA's chances are uncertain. Biden, on the other hand, wants to end Yemen's civil war, as well as domestic and Democratic Party criticism, which pushes him to hold Saudi Arabia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problems. Unfortunately, the Biden administration's pressure will not affect Saudi Arabia's internal condition, but it will obstruct the manifestation of the US' hegemonic power in the Middle East.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Atlantic, the crown prince was asked whether Biden misunderstands something about him. He responded, "Simply, I do not care" and that it was up to Biden to think "about the interests of America" when weighing his dealings with the Saudi monarchy (Madhani, 2022).

5. Conclusion

Biden, like Trump, will push for the implementation of Trump's Abraham Agreement and the normalization of ties between Arab countries and Israel. The Democratic Party's foreign policy tradition is democratic values and human rights. In contrast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he Biden administration focused on two concerns: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and human rights challenges. Returning to the JCPOA, helping non-state allies in the name of democracy and humanitarianism, attempting to resolve the Yemen conflict and humanitarian crisis, and putting pressure on Saudi Arabia to realign its alliance is all examples of these two principles. Returning to the JCPOA, supporting non-state allies in the name of protecting democracy and humanitarianism, hoping to end the Yemen war and humanitarian crisis, and putting pressure on Saudi Arabia to reshape alliance relations and achieve idealistic democracy. These are all examples reflected in US Middle East policy.

The efficiency of the US military might in obtaining utterance power is decreasing, and the US must invest in the Middle East's construction to achieve utterance power, particularly in the Gulf nations' development vision and the rehabilitation of Syria and Iraq (Dassa et al, 2021). Furthermore, becaus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lifted sanctions against Iran, the Iranian nuclear problem remains a major concern. In addition, to help Yemen and Syria, Biden's Middle East human rights strategy is more like pressure on Saudi Arabia and the remaking of US-Saudi ties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approach might contribut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US-Saudi ties. The US principled foreig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ecessitate the US government's revived global participation. Only with the help of allies in the area and throughout the globe will the United States be able to undertake the efforts required to meet the Arab allies' genuine security concerns while also advancing human rights. Clearly, the issues that Biden faces are tremendous, but he has shown that he is extremely capable by coming out of retirement to ru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idst of major crises.

References:

- Aljazeera (2021). “Biden Administration Approves \$650m Weapon Sale to Saudi Arabia” *Aljazeera*, November 4th. Accessed April 16th.
<https://www.aljazeera.com/news/2021/11/4/biden-administration-approves-650m-weapon-sale-to-saudi-arabia>
- Biden J.R (2020) “Campaign Press Release - Fact Sheet: Joe Biden and the Arab American Community: A Plan for Partnership”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August 8th. Accessed November 14th.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campaign-press-release-fact-sheet-joe-biden-and-the-arab-american-community-plan-for>
- Biden J.R (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Whitehouse*, March 2021. Accessed March 25th.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 Borger Julian (2016). “Obama administration offered \$115bn in weapons to Saudi Arabia: report” *The Guardian*. (Washington), Sep 8, 2016. Accessed November 2nd.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6/sep/08/obama-administration-offered-115-billion-weapons-saudi-arabia-report>
- Borger, J., & Wintour, P. (2021) “Biden Announces End to US Support for Saudi-Led Offensive in Yemen” *The Guardian*, February 4. Accessed April 14th.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feb/04/us-end-support-saudi-led-operations-yemen-humanitarian-crisi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The Employment Situation—January 2021” *Bureau of Labor Statistics*. Accessed April 12th.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t_03052021.pdf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2020) “Arms Sales in the Middle East: Trends and Analytical Perspectives for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23. Accessed March 4th.
<https://fas.org/sgp/crs/mideast/R44984.pdf>
- Cooley, A., & Nexon, D. (2020). *Exit from Hegemony: The Unraveling of the American Global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159.
- Dassa, Dalia, Kaye, Robinson Linda, Martini Jeffrey, Vest Nathan, and Ashley L. Rhoades (2021) *Reimagining US Strategy in the Middle East: Sustainable Partnerships, Strategic Investment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21.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958-1.html.
- De Mesquita, B. B., & Lalman, D. (2008). War and reason. In *War and Reason*. Yale University Press.
- Diwan Kristin Smith (2021) “The Khashoggi Case in Biden’s Strategy and U.S. Policy Direction” *AGSIW*, February 26. <https://agsiw.org/the-khashoggi-case-in-bidens-strategy-and-u-s-policy-direction>
- Haass, R. (2021) “A Realist Rest for US-Saudi Relations. Project Syndicate”. February 27. Accessed March 21st.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us-saudi-relations-after-khashoggi-intelligence-report-by-ri>

chard-haass-2021-02?barrier=accesspaylog

- Haltiwanger John (2021) “Biden Promised a Foreign Policy Centered on Human Rights, but is Continuing Trump-era Policies and Practices” *Business Insider*, April 17th. Accessed April 22nd.
<https://www.businessinsider.com/biden-promised-to-prioritize-human-rights-but-continues-trump-policies-2021-4>
- Hope, B., & Scheck, J. (2020). *Blood & Oil: MBS's Ruthless Quest for Global Power*. New York: Hachette Books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1) “Al-Tanf, Syria”.
<https://www.crisisgroup.org/trigger-list/iranus-trigger-list/flashpoints/al-tanf-syria>
- Kristin Smith Diwan, (2017) “Jerusalem Declaration Unites – and Divides – the Gulf”. *AGSIW*.
<https://agsiw.org/jerusalem-declaration-unites-divides-gulf/>
- Madhan Aamer (2022). “US Official: Biden Fortified Saudi's Patriot Missile Supply” *APN News*, March 21. Accessed March 29th.
<https://apnews.com/article/biden-saudi-arabia-middle-east-yemen-jake-sullivan-4285c747ef00474f35348024708f35ce>
- Model Diplomacy (2020) “U.S. Troops in Iraq” *Model Diplomacy*. Accessed March 28th.
<https://modeldiplomacy.cfr.org/popup-cases/us-troops-iraq>
- Morgenthau, H. J. (2014). “A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lism reader*, 53.
- Murphy Francois (2021) “Iran Accelerates Enrichment of Uranium to Near Weapons-grade, IAEA Says” Reuters, August 8th. Accessed April 10th.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accelerates-enrichment-uranium-near-weapons-grade-iaea-says-2021-08-17/>
- Nye, J. S. (2020).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 to Trump*. New York: Oxford Press.
- Parsi, T. (2021). “Toward an Inclusiv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Persian Gulf Quincy Brief No. 7”.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January. Accessed March 8th.
<https://quincyinst.org/2021/01/21/toward-an-inclusive-security-arrangement-in-the-persian-gulf/>
- Paul R. Pillar (2021) “What is a US ‘ally’ in the Middle East?” *Responsible Statecraft*, March 2nd. Accessed March 17th.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1/03/02/whatis-a-us-ally-in-the-middle-east/>
- Ross, D., & Satloff, R. (2021) “Defining a Mature, Balanced Relationship with Saudi Arabia: An Urgent Tas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Policy Notes 6).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February 22. Accessed March 15th.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defining-mature-balanced-relationship-saudi-arabia-urgent-task-biden-administration>
- Sanger, D., & Schmitt, E. (2021) “Biden Signals Break with Trump Foreign Policy” *The New York Times*, February 4. Accessed March 14th.

<https://www.nytimes.com/2021/02/04/us/politics/biden-foreign-policy.htm>

Sink, J. (2021) “Biden Adviser Warns of “Escalating Nuclear Crisis” with Iran” *Bloomberg*, January 29. Accessed March 3rd.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1-29/biden-adviser-warns-of-escalating-nuclear-crisis-with-iran>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IPRI*. Accessed March 7th.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1-06/sipri_yb21_summary_en_v2_0.pdf

Szuba Jared (2022) “Four US Soldiers Injured by Rocket Attack in Syria” *Al-monitor*, April 7th. Accessed April 13th.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22/04/four-us-soldiers-injured-rocket-attack-syria>

Trenin, D. (2017). *What is Russia up to in the Middle East?* John Wiley & Sons. 1-4

Turak, N. (2021) “Biden’s Snub of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Is a “Warning” Signaling a Relationship Downgrade” *CNBC*. February 17. Accessed April 11th.

<https://www.cnbc.com/2021/02/17/bidens-snub-of-saudi-crown-prince-mohammed-bin-salman-is-a-warning.html>

Wadhams, N., Motevali, G., & Tirona, J. (2021) “Biden Weighs Easing Iran’s Pain” *Bloomberg*, February 6. Accessed March 17th.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2-06/biden-weighs-easing-iran-s-pain-without-lifting-key-sanctions>

Wehner, P. (2021) “The End of Trump Can Be the Beginning of America” *The New York Times* (New York) January 22. Accessed March 14th.

<https://www.nytimes.com/2021/01/22/opinion/trump-legacy.html>

Yazdani, E., & Hussain, R. (2006). “United States' Policy towards Iran after the Islamic Revolution: An Iranian Perspective” *International Studies*, 43(3), 267-289.

Zengerle Patricia (2021). “Biden Administration Approved \$735 Million Arms Sale to Israel – Sources” *Reuters*, May 7th. Accessed March 10th.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biden-administration-approved-735-million-arms-sale-israel-sources-2021-05-17/>

제2세션 [사회·문화·종교 언어·문학 분과]

“문화 정책을 앞세운 UAE-이스라엘의 데탕트 전략”
정진한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유대 디아스포라와 유대인 고토 귀환의 성서 어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쿠웨이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 소설 속 장소 선정의 상관관계: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을 중심으로”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 터키어의 처소 논항 교체에 관한 소고”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

“한국어 화자의 페르시아어 발음 오류 분석: 자음을 중심으로”
이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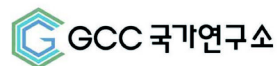
문화 정책을 앞세운 UAE-이스라엘의 데탕트 전략

정진한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문화 정책을 앞세운 UAE-이스라엘의 데탕트 전략

2022. 5. 14.

정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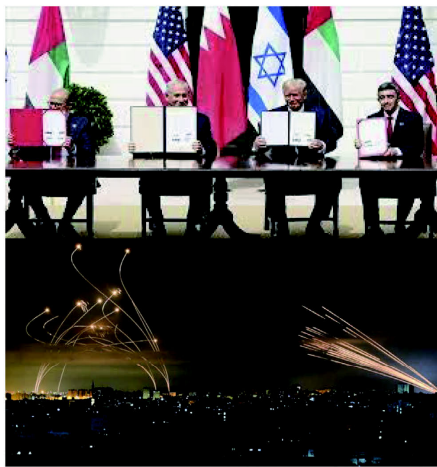


CONTENTS

- I. 바이든 정부와 UAE-이스라엘 관계
- II. 문명들의 교차로 박물관과 UAE-이스라엘 관계
- III. EXPO 2020의 이스라엘 전시관
- IV. 불안정한 전망 속 안정

I. 바이든 정부와 아랍-이스라엘 관계

아브라함 협정의 추동력 약화



견고한 UAE-이스라엘 관계



II. 문명들의 교차로 박물관과 UAE-이스라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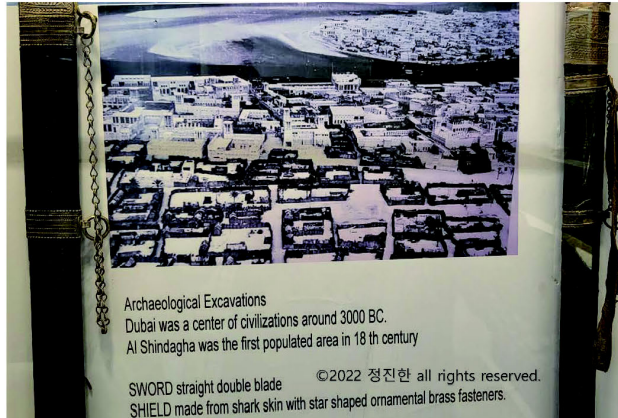
문명들의 교차로 박물관

- 2014년 개관한 사설 박물관
- 위치: 쉐인다가르(SHINDAGHAR) 구역
 - UAE 내 가장 오래된 거주, 무역, 금속기 제조의 중심지
 - 최대 기원전 약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
- ~2020년 말: 동서문명의 오랜 교류상 중심
- 박물관 건물: 19세기의 두바이 왕실의 거물 셰이크 하세르의 저택 일부
- 2015년: 올해 최고의 박물관 상 수상(GCC 사무총장)
 - 수상 이유: 걸프지역 유산의 보존, 미래 세대로 연결

Nations are not measured by their material wealth alone, but by their cultural heritage.

- H H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

두바이의 역사성



©2022 정진한 all rights reserved.

교류의 상징물



©2022 정진한 all rights reserved.

진주와 인류 문명 교류사



©2022 정진한 all rights reserved.

다양한 문명들의 전시



©2022 정진한 all rights reserved.

©2022 정진한 all rights reserved.



이스라엘과 MOU(2020. 12. 6.)

- MOU: 문명의 교차로 박물관 (UAE)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유대인 유산 센터(이스라엘)
- 국제관용연구소(두바이 통치자 산하기관) 후원
- 주요 참석자:
 - UAE 유대인 위원회의 수석 랍비 엘리에 아바디에
 - 예루살렘시 부시장 플뢰르 하산 나훔 사이드
 - 아즈리엘리 재단 이사 대니 하킴
 - 미국 세파르디 연합 유대 경험 연구소장 드로라 아루시
 -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 교수 아비아드 모레

©2022 정진한 all rights reserved.

MOU에 대한 평가

칠리 트로퍼 이스라엘 문화스포츠 장관

- UAE 건국기념일(MOU 3일전) 박물관 가상 관람
- 히브리어 브로셔와 안내 및 설명을 처음 경험
- 문화 협력: 중동내 역사적인 유대 유물을 포함한 역내 공유 유산을 기반으로 해야!
- 아브라함 협정의 공존과 관용의 기여와 가치!

박물관 설립자 아흐마드 알-만수리

- UAE 연방국가평의회 출신
- MOU는 아랍과 유대인 관계에 일대 전환점
- 아브라함 협정을 기반
- 차갑고 부적정한 뉘앙스를 내포하는 “관용” 대신 “포용성”이나 “환영”으로 대체하자
- 이스라엘의 직접 입성을 적극 환영

쥬리 애슐리 페리 중동 및 북아프리카 문화유산센터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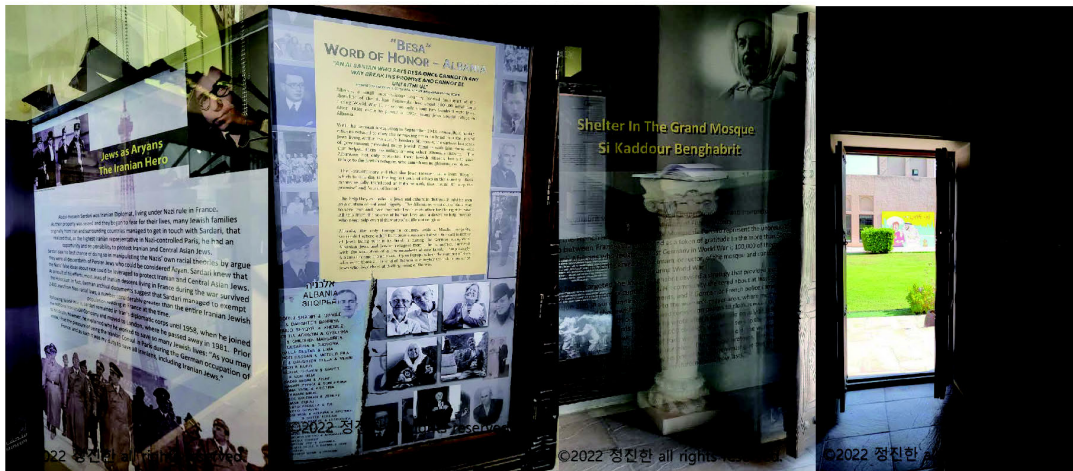
- 아브라함의 텐트 재건: 역사적 혈연, 미래 동맹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일대에 산재한 유대인 유적지에 관한 연구와 전시 등을 UAE와 협력하는 안을 언급

홀로코스트 관 개관

- 아랍세계 최초의 홀로코스트 기념전 (2021. 6.)
- 세계 유대인들의 큰 관심
- 알바니아, 이란, 프랑스 등에서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준 무슬림
- 알바니아: 유럽에서 유일하게 홀로코스트로부터 유대인을 보호
- AJC이사들과 지도자들: 2021년 12월에 아브라함 협정으로 수교했거나 곧 수교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랍국가들을 일주일간 순방하는 길에서 박물관 관람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한 무슬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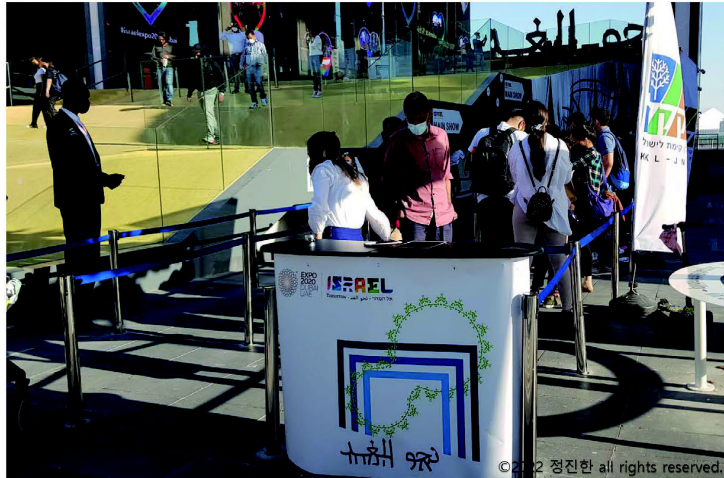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한 무슬림들





III. EXPO 2020의 이스라엘 전시관

내일을 향하여



What do you know about Israel?



- 이스라엘 디스카운트의 핵: 지속가능성
- 다양성의 공존과 재생/나눔 및 미래 가치의 담론
 - 자연의 다양성: 3개 대륙, 철새 등 다종의 식생
 -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제시
 - 생명공학과 수자원 재생 선진국 강조
 - 건국 직후부터 개도국 위주의 140개국 원조: 중국 & 인도 ~ 태평양 도서국가
 - 최첨단 국가, 벤처 이미지(신생, 강성, 성장성)
- 아랍 여러국가와의 공존/화합/미래 비전 공유
 -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의 이웃은 배제

What do we want you to know about Israel?



- 3대 주요 종교의 성지: 바위돔, 통곡의 벽, 성모교회 VS 바하이 가든, 마사다, 수태교회
-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무슬림들
- 크네셋: 무슬림, 남녀, 아랍 & 유대인, 각종 종교와 종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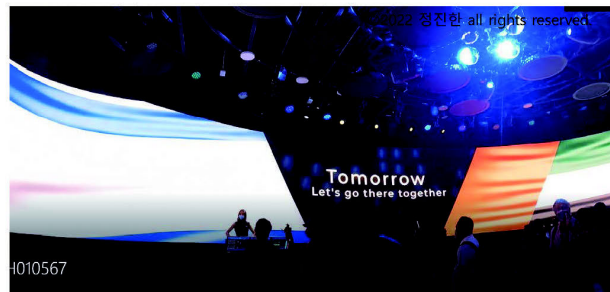
Collaboration with Arab Countries



- 상징:에미레이츠 팰리스 호텔, 바레인 월드트레이드센터, 하산2세 모스크
- 생태 복원 협력: 요르단과 부영이, 아부다비와 거북이
- UAE 담수화 사업

Tomorrow, let's go together, نحو الغد

- 두 불빛이 합쳐지며 등장하는 DJ: 부계는 아랍, 모계는 유대인
- FORGET ABOUT THE RIGHT ZONE PEOPLE
- 비트: FROM THE EAST, THE WEST, SHAMAL, JANUB; MARCHING TOGETHER TO THE FUTURE
- 아이디어: 세계 어느 곳에서부터와 그 반대편으로부터, 세계를 바꾸는 원동력



אל למחר

- 시골, 도시, 로마 유적지,...→ GENUINE CREATIVITY: 과거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사고하세요!
- 친환경,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 교통(BRILLIANT FUTURE/IDEA)
- AROUND THE WORLD: EQUAL OPPORTUNITY FOR ALL PEOPLE.
- DIVERSITY. CULTURAL RICHNESS. WONDERFUL INGENUITY
- DIFFERENT VOICES, MINDS, MORE VOICE/CONNECTION: LET'S HEAR YOU! YALA!
- FOLLOW THE HOPEFUL BEAT OF TOMORROW: FAITH, TRUST, HOPE (مستقبلنا الإيمان والثقة والأمل)
- 지구 바깥으로 나가자. 우린 모두 다르다. 다름은 강하다. 다름이 우리의 미래



IV. 향후 전망

문화교류의 추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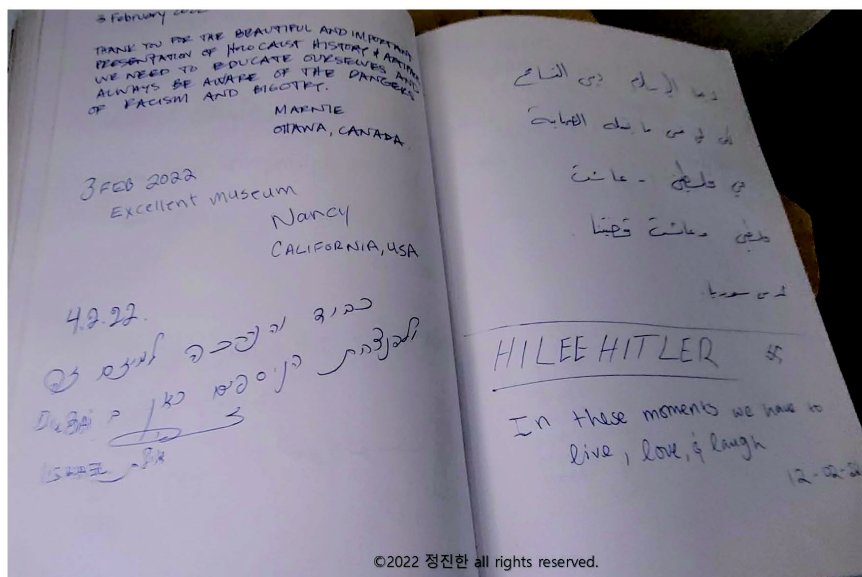


- 문화교류의 명분과 정당성
 - 박물관의 모토: 역사 속 여러 문명들 사이의 긍정적 관계들을 내세워 사람들을 화합을 유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관용과 존중 강조
 - 엑스포에서의 메시지: 화해와 공존. 파괴적이고 배타적 관계를 넘어서는 관용적이고 창조적 미래의 공동 가치 추구
- 국제 유대조직들의 힘과 아랍 각국들의 호응
 - AJS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에 대한 아랍 각국들의 성대한 영접
- 아랍-이스라엘 수교 확장의 진척
- 팔레스타인 대의의 쇠락과 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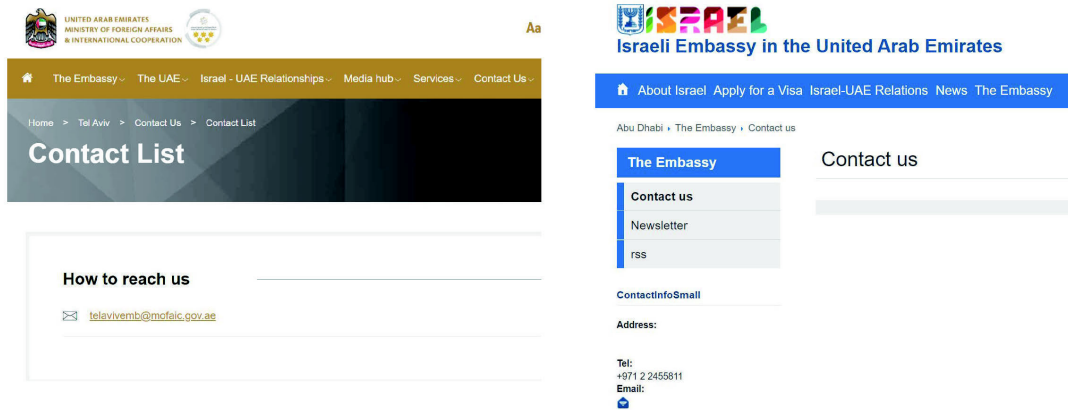
모순에서 비롯된 난관

-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반성(명분) ← 모순/괴리 → 아파르트헤이트/식민주의(정책 실행)
- 아랍-이스라엘 수교에 대한 아랍 대중의 여론: 88% 반대, 6%

(출처: ARAB CENTER FOR RESEARCH AND POLICY STUDIES, 2020)



불완전·불균형·불안정 속 진전



감사합니다

유대 디아스포라와 유대인 고토 귀환의 성서 어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신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자신들의 고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타 국가들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산(離散) 또는 분산(分散)을 유대 디아스포라(Jewish Diaspora)라고 부른다. 유대 디아스포라에 상응하는 대표적인 성서 히브리어 어휘는 갈루트이다.¹ 반면에 디아스포라의 삶을 정리하고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이주는 알리아로 불린다.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이유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본래 지역을 떠나 타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다, 사람들의 이주가 대규모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 보인다. 한 국가나 지역 안에서의 이주도 있었고 대륙 간의 이민도 일어났다. 유럽 대륙 안에서 일어났던 농민들의 도시 이주나, 삶의 기회를 찾아 새로운 대륙 미국으로 이어진 이민 물결이 그런 경우들이다. 한편 지난 수십 년 사이에는 또 다른 차원의 규모가 큰 인구 이동 현상이 나타났다. 원거리 교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생업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 노동자 물결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사회적 변혁으로 발생한 분쟁과 전쟁 가운데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난민 현상이다.

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 본래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도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² 하지만 ‘이민’과 ‘역이민’ 또는 ‘이주’와 ‘역이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것은 아직 관찰되지 않는다.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유럽 국가들에 정착한 아프리카 또는 중동 난민들이 그들의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는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특임강의교수

¹ 그리스어 동사 디아스페이로(διασπείρω)에서 파생된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특정한 무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처음에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타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했다. 후에는 헬라 제국 내 여러 지방들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의 모국을 떠나 타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 그룹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² 예를 들어,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귀향하는 구약성서 룻기의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참고하라.

이에 반하여 유대 디아스포라와 유대 고토 귀환 운동 곧 갈루트와 알리야는 타 민족들의 보편적인 이합집산(離合集散) 현상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갈루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다. 갈루트는 이천 칠백 년 이전에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갈루트는 특정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 나름의 지역 문화적 전통도 형성시켜 왔다.³ 다른 특징은 갈루트와 알리야가 역사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깊이 각인된, 민족 정체성의 이슈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갈루트와 알리야는 유대 공동체 및 국가적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되어 왔는 점도 타 민족의 경우들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⁴

해외 거주 자국민을 통한 경제적 유익과 국가 발전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확인한 여러 국가들이 자국민 디아스포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면서 이 영역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디아스포라를 다루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기도 했다.⁵ 갈루트와 알리야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주로 갈루트와 알리야 현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나 한국적 상황을 염두에 둔 접근으로 파악된다.⁶

갈루트와 알리야의 기원에 대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헌인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나는 어원적 어휘적 함의에 대한 구체적 관찰은 유대인들이나 외국 학자들 가운데 따로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아마도 갈루트와 알리야가 유대인들에게 이미 너무 친숙한 개념이며 그들의 역사와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비유대인 학자들이 갈루트와 알리야의 성서 히브리어적 함의를 연구 조사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³ 흩어진 유대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스파라딴은 보통 북부 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지역 및 근동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총칭하며, 아쉬케나짐은 유럽 지역 및 미주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총칭한다. 일부 스파라딴은 히브리어와 스페인어가 혼합된 ‘라디노’를 사용하면서 라디노 시들과 노래들을 남겼고, 아쉬케나짐은 히브리어와 독일어가 섞인 이디쉬어를 사용하면서 문학 활동을 했다. 이디쉬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생활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⁴ 2021년 6월 현재 제36대 이스라엘 내각은 디아스포라부(משרד התפוצות The Ministry of Diaspora Affairs)와 이민흡수부(משרד העלייה והקליטה The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 건국 훨씬 이전이었던 1929년에 설립된 유대기구(Jewish Agency 또는 הסוכנות היהודית אל ארץ ישראל Jewish Agency of Israel) 역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오고 있다.

⁵ 세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포럼, 고양시 일산 킨텍스, 2021.11. 24-25.

⁶ 대표적인 최근 국내 연구로는 아래를 참고하라: 최창모,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행위자로서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연구”, 프로시딩, 세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포럼, 2021; 홍인화, 임채환, “이스라엘 귀환동포의 알리야와 지원정책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5집 1호(2017), pp. 165-188; 최영철,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운동과 구쉬 메무님(Gush Emunim), 『중동연구』 (2002); 최보선, “탈북 주민 문제와 이스라엘 이주민 정책”, 『통일경제』 2월호(1997).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성서 히브리어 안에서 갈룻과 알리야가 본래 어떤 용어적 함의를 가지며 그 본래적 의미가 성서시대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갈룻과 알리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성서 언어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갈룻과 그 함의

2.1. 갈룻의 사전적 의미와 성서시대의 갈룻

오늘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산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히브리어 어휘는 크게 תפוצות [테푸쯔트]와 גלות [갈룻] 두 가지다. 테푸쯔트와 갈룻 모두 영어로는 Diaspora 에 해당한다. 이 어휘들은 성서 히브리어 어근 פוצ [포쯔]와 גלה [갈로]에 기원한다. 이 두 어근에서 만들어진 사역적 의미의 히프일형 동사 הפיץ [헤피쯔]와 הגלה [헤글라]가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을 타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린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된다.⁷ 어근의 전체적인 사용 빈도에서는 갈로가 포쯔의 약 세 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된다(גלה 213 회; פוצ 66 회). 사역형 동사 패턴의 사용 빈도는 이 둘이 비슷하게 나타난다(הגלה 38 회; הפיץ 36 회).

명사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를 파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흩다, 산재하다’ 의미의 헬라어 동사 디아스페이로(διασπείρω)가 구약성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히브리어 어근 포쯔가 히프일 동사로 사용된 곳이다. 신명기 28 장 64 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민 중에 ‘흩어버리다’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헤피쯔(הפיץ)를 칠십인역(Septuagint)이 디아스페이로(διασπείρω)로 옮긴 것이다. 명사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는 칠십인역 신명기의 같은 28 장 앞 부분 25 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디아스포라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 “וְהָיִיתָ לְזִמְנוֹתָ לְכָל מַמְלֹכוֹת הָאָרֶץ”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흠음을 당하고”라는 부분을 칠십인역이 의역하면서 그 상황을 잘 묘사할 수 있는 명사 디아스포라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들의 문맥에 근거하면 디아스포라의 의미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푸쯔트(תפוצות)는 사역형 동사 הפיץ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테푸쯔트는 디아스포라의 사전적 의미처럼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바깥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러나 이 어휘 테푸쯔트는 유대 이산의 역사적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우선 성서 히브리어에 이 형태의 명사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대 이산이 시작되었던 당대에

⁷ ‘폭풍’을 의미하는 어근 סער[사아르]나 ‘씨 뿌림’을 의미하는 זרע[자라], ‘흠음’을 의미하는 רוח [제라]도 수사적으로 ‘흩어버리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된다. 예로 하박국 3장 14절, 스가랴 7장 14절, 10장 9절, 에스겔 12장 15절 등을 보라.

기원을 둔 어휘가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곧 후대의 상황을 묘사한 어휘인 셈이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산은 단순한 흩어짐의 상태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유대 디아스포라는 그 시작이 자의적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이산은 자신들이 원해서 선택했던 바가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었다.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타국으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시작은 아시리아 제국(Neo-Assyrian Empire, BC 911-609)의 사르곤 2 세에 의한 북 이스라엘 왕국(BC 722)의 멸망이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 새겨진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BC 586 년의 바벨론 제국(Neo-Babylonian Empire, BC 626-539)의 네부카드네צר 2 세에 의한 남 유다 왕국의 붕괴로 나타난 바빌론 유수(幽囚)였다(BC 586).

이런 문맥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상응 히브리어 어휘는 ‘사로잡아가다’라는 사역형 히프일 동사 헤글라(הגלה)에서 파생된 명사 갈룻(גלות)이다.⁸ ‘포로로 잡혀 끌려감’ 또는 ‘추방당함’을 의미하는 갈룻은 자신들이 살아오던 본래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였다. 유대인들의 단순한 이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부 내지는 상당수가 그들의 영원한 모국인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들의 신 여호와/야와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⁹ 이 사상과 인식은 ‘디아스포라’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칠십인역의 신명기 28 장 본문의 문맥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흔히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명명되는 신명기 28 장은 상반되는 내용으로 배열된다. 앞의 27 장까지 제시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대대로 복을 받게 되지만(신명기 28:1-19), 율법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28:20-68)을 선포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신들의 땅에서 뽑혀 만민 중에 흩어지는 것은 신명기 28 장 후반부에 나열된 저주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의 절정으로 묘사되며(28:63-68), 이 문맥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¹⁰

⁸ 같은 동사에서 파생된 골라(גולה)도 디아스포라에 상응하는 용어이다. 갈룻(복수 גלויות 갈루옷)이 이스라엘 바깥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공동체를 좀 더 의미한다면 골라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가진다.

⁹ 다음 구절들을 참고하라: 신명기 4장 27절, 28장 64절; 열왕기상 14장 15절, 예레미야 17장 4절, 시편 44:11, 에스겔 20:23.

¹⁰ 칠십인역에서 디아스포라는 모두 5회 나타난다(신명기 28장 64절, 30장 4절; 느헤미야 1장 9절; 시편 9편 2절; 예레미야 15장 7절) 최초로 디아스포라가 사용된 신명기 28장 64절의 경우 이 단어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성서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의 문맥을 따라 번역하면서 동원한 용어로 보인다: וְהִפַּצְתָּ אֶתְּיְהוָה בְּכָל-הָעַמִּים מִקְצֵה הָאָרֶץ וְעַד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 시리니”.

여호와/야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경고했던 이 저주가 그들의 후대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잘못이었다.¹¹ 구약성서 열왕기와 역대기와 선지서 일부는 남 유다 왕국에서 발생한 유대인들의 추방을 기술한다(열왕기하 24: 8-17, 25:18-21, 27-30; 역대하 36:5-21; 예레미야 52:1-34).

바빌론은 세 차례에 걸쳐 남 유다 왕국의 포로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BC 605 년경 남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것이 1 차 잘못이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이 시기에 자신의 동료들과 바빌론으로 이송되었다. 제 2 차 잘못은 바빌론 제국에 대한 남 유다 왕국의 3 년간 반란의 결과였다. 남쪽 이집트와의 장기적인 소모전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던 바빌론이 힘을 전열을 가다듬고 남 유다로 내려왔던 BC 597 년경에 일어났다. 약 3 개월간의 예루살렘 포위를 버텼던 유다 왕 여호야킨은 네부카드네צר 2 세 앞에 항복했고,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취하고, 여호야킨 왕과 그의 가족 및 주변 인물들 그리고 약 11,000 명의 군인, 관리,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들 가운데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개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 3 차 잘못도 바빌론에 대한 남 유다 왕국의 반란에 기인한다. 약 8 년 간 바빌론의 속국으로 남아있었던 남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 쪽으로 기울면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했던 바빌론을 배반한다. 바벨론 군대는 반란 당 해에 유다로 진입하여 남 유다 왕국 여러 성과 요새를 함락한 후 올라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약 30 개월 간의 예루살렘 포위 끝에 성은 함락당한다(BC 586).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는 눈알을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포로로 잡혔던 관리들은 바벨론 왕 앞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600 명의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한다. 예레미야의 기록보다 약 백 년 이후의 역사적 배경 보여주는 에스더서에는 유대인들의 이산이 에스더서의 적대자로 언급되는 하만의 언어 가운데 잘 묘사되고 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에스더 3:8).

잘못 바벨(בבל, 바벨론 포로 추방)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억과 집단적 인식은 오늘날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기억과 인식은 이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실천적 유대교 전례(典禮)를 통하여 2,500 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스가랴 7-8). 그것은 이 사건들이 일어난 날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유대인들의 금식이다.

2.2. 잘못의 어원과 그 함의

¹¹ 잘못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신명기의 기록 시기를 잘못이 일어난 이후로 보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사상 자체를 후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약성서 전체적 문맥에서 조화되지 못한다.

히브리어 갈룻의 셈어적 기원은 보통 ‘추방’이나 ‘망명’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galitu 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성서 히브리어에서 갈룻의 어근이 되는 גלה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1) uncover, 2) remove, leave, go into exile (BDB: 102; HALOT vol 1, p. 191). 구약성서에서 이 어근이 기본형 동사 칼(또는 파알)로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44 회로 파악되는데 그 용례들을 분석해보면 ‘드러내다’라는 첫 번째 의미보다 ‘떠나가다’라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29 회). 첫 번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15 차례 확인되는데 이 의미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 관용구 גלה+אזן (to open someone’s ears = to inform him) 형태로 나타난다(13 회). 그러나 두 경우에는 גלה [갈라]가 비밀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모스 3:7 כִּי לֹא יַעֲשֶׂה אֲדֹנָי יְהוֹה דְּבָר כִּי אִם-גָּלָה סוֹדוֹ אֶל-עֲבָדָיו הַנְּבִיאִים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잠언 20:19 גֹּלֶה-סוֹד הוֹלֵךְ רֶכֶל וּלְפִתָּהּ שֹׁפְתוֹ לֹא תִתְעַרֵּ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 어근이 칼의 수동형 니프알로 나올 경우 그 동사는 항상 첫 번째의 의미, 곧 ‘드러나다’의 의미로 사용됨이 확인된다(총 32 용례). 특별히 하나님의 드러나심 또는 하나님의 계시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동사가 사용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5:7 וַיָּבֹאוּ שָׁם מִזְבֵּחַ וַיִּקְרָא לְמָקוֹם אֵל בֵּית-אֵל כִּי שָׁם נִגְלוּ אֱלֹהִים בְּבִרְחוֹ מִפְּנֵי אָחִיו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사무엘상 3:21 וַיִּסָּף יְהוֹה לְהֵרָאָה בְּשָׁלַח כִּי-נִגְלָה יְהוֹה אֶל-שְׁמוּאֵל בְּשָׁלוֹ בְּדֶבֶר יְהוֹ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사야 53:1 מִי הָאִמּוֹן לְשִׁמְעָנֵנוּ וְרוּעַ יְהוֹה עַל-מִי נִגְלָתָ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용례들이 보여주는 바는 이 동사 어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어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용례로 제시된 이사야 53 장 1 절의 경우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메시아 예언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어지는 2 절부터는 인생들 가운데 임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예언으로 알려진다. 이사야 53 장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진영도 있지만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인생 가운데 계시될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받아들여진다. 어근 *גלה*가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어휘임을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본문이 되는 셈이다.

반면에 이 어근이 사역형 히프일로 나오는 구약성서의 모든 용례들은 모두 국외 추방을 의미하는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다(deport, *HALOT*, p. 192). 흥미로운 부분은 이 동사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동사적 명사 갈룻이다. 다른 셈어들의 경우처럼 “히브리어의 동사적 명사(동사 파생 명사)는… 형태와 의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동사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게세니우스, 2003: §83a). 하지만 갈룻은 그 형태에 있어서 사역형 *הגלה* [헤글라]에서 파생된 명사로 보기에는 어색하다. 성서 히브리어의 다른 히프일 동사 경우처럼이라면 우리가 약동사 *הגלה* [헤글라]에서 기대하는 동사적 명사 형태는 *הגלה* [하글레]나 *מגלה* [마글레]이어야 할 것이다.¹² 그러나 갈룻의 형태는 사역형 *הגלה*에서 파생된 명사 라기보다 기본형 *גלה*에서 파생된 형태에 가깝다. *גלה* 어근의 사역형 동사와 기본형 동사의 전체 사용 용례를 빚대어 제시해 본다면 ‘추방하다’와 ‘드러나다’라는 두 개의 동사에서 함께 파생된 명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갈룻은 ‘추방’과 ‘드러남’의 이중적인 어휘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과 그 이산은 그들의 신앙적 상태가 드러나고, 그들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시와 연관됨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단히 흥미롭게도 바벨론 유수 곧 갈룻을 언급하는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은 그 추방 내지 이산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를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언급한다. 곧 이산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 6:10 וַיִּדְעוּ כִּי-אֲנִי יְהוָה לֹא אֶל-חֲנָם דְּבַרְתִּי לַעֲשׂוֹת לָהֶם הָרָעָה הַזֹּאת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에스겔 12:15 וַיִּדְעוּ כִּי-אֲנִי יְהוָה בְּהַפְּצִי אוֹתָם בְּגוֹיִם וְזָרִיתִי אוֹתָם בְּאַרְצוֹת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흠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헤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스가랴 10:9 וְאַזְרְעֶם בְּעַמִּים וּבְמַרְחָקִים יִזְכְּרוּנִי וְחָיוּ אֶת-בְּנֵיהֶם וְשָׁבוּ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흠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¹² 성서 히브리어에서 *הגלה* [하글레]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글레는 연계형 형태로 7군데에서 발견된다(예레미야 24:1, 27:20, 43:3; 에스겔 39:28; 아모스 1:6; 예레미야 애가 4:22; 역대상 5:41).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바벨론 유수를 의미하는 주된 어휘는 갈룻으로 나타난다(15회).

더욱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산의 고난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새로이 찾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그 고토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다:

신명기 30:3 וְהָיָה בְּשׁוּבוֹ וְקִבְּצָהּ מִכָּל־עַמִּים אֲשֶׁר הִפְצֵהָ ה' הוֹדָה אֱלֹהֵי דָ שָׁמָּה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사야 11:12 וְאֶסֶף נְדָחֵי יִשְׂרָאֵל וְנִפְצוֹת הַנִּדְחָה יִקְבֹּץ מֵאֲרָבַע כְּנָפֹת הָאָרֶץ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스겔 37:21 הִנֵּה אֲנִי לֹקֵחַ אֶת-קִבְּרֵי יִשְׂרָאֵל מִבְּיִן הַגּוֹיִם... וְהִבָּאתִי אוֹתָם אֶל-אֶדְמָתָם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나라에서 취하며...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더욱이 에스겔 39 장 28 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한다. 이스라엘을 그 고토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알리야로 이어지는 것이다.

3.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알리야와 그 함의

3.1. 알리야의 사전적 의미와 성서시대의 알리야

‘올라감’을 의미하는 알리야(עליה Aliyah)는 히브리어 기본형 동사 עלה [알라]에서 파생된 명사로 문맥을 따라 몇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 명사로서 알리야는, 성루(城樓), 가옥의 다락방 또는 위로 이어지는 층계를 의미하지만 안식일 회당 예배의 문맥에서는 토라 포션을 읽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알리야는 보통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역사적으로 지리적 이스라엘 땅, 현대 시대에 주로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로서의 알리야이다.

알리야가 독자적인 용어로서 구약성서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알리야의 기원과 의미는 구약성서 기록에서 찾아진다. 하지만 약 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기록된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알리야는 시대를 따라 일정한 의미의 변화를 보여주며¹³ 본고에서 언급하는 알리야의 의미도 이런 시대적

¹³ 예를 들어 주로 다락방의 의미로 사용되던 알리야가 ‘층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성서시대 후

변화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알리야는 크게 제 1 성전시대와 제 2 성전시대 곧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전적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여겨진다.

3.1.1. 바벨론 포로기 이전 시대의 알리야

바벨론 유수 이전 시대의 알리야는 여호와/야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의미했다. 모세오경은 일 년에 세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한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이 세 번의 절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이도록 기록한다: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찌니라”(출애굽기 23 장 14 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찌니라” (출애굽기 23 장 17 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신명기 16 장 16 절). שלוש רגלים [살로쉬 레갈림] (Three Pilgrimage Festivals)이라 불리는 세 유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고, 후대의 랍비주의 유대교에서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עליה לרגל [알리야 레레겔]이라고 불렀다. 예루살렘으로의 절기 순례를 알리야(올라감)이라고 부르게 것을 두고는 보통 지리적 은유적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해발 750 미터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해변 지역에서 걸어 올라와야 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계의 중심 도시로서 높으신 하나님을 뵈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의 알리야가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음도 확인된다. BC 930 년경 이스라엘 왕국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는데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북 이스라엘 백성의 알리야는 북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정치적 위협으로 작용했다.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왕국의 북쪽 지역에 있는 단과 남쪽 지역에 있는 벧엘에 송아지 형상을 세워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소로 선포하고 자국민들의 예루살렘 알리야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열왕기상 27 장 27-28 절). 이 본문에는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등장한다: עלות ירושלם [알롯 예루살라임] (28 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알리야는 구약성서 본문 가운데 특별히 예언서에서 עלה [알라] 동사를 통하여 강렬하게 표현된다. 예를 들면:

이사야 2:3 וְהָלְכוּ עַמִּים רַבִּים וְאָמְרוּ לָנוּ וְנַעֲלֶה אֶל-הַר-יְהוָה אֶל-בֵּית אֱלֹהֵי יַעֲקֹ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반기로 보인다. 포로기 이후의 기록인 역대하 9장 4절에서 알리야가 층계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포로기 이전의 병행본문인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층계는 알리야가 아닌 올라가 사용된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미가 4:2 וְהָלְכוּ גוֹיִם רַבִּים וְאָמְרוּ לָכֹן וְנִעְלָה אֶל-הָר־יְהוָה וְאֶל-בַּיִת אֱלֹהֵי יַעֲקֹ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본문은 동 시대를 살았던 남 유다 왕국의 두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가 공유하는 예언 본문으로 널리 알려진다. 구약성서에서 특정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 누가 누구에서 영향을 끼쳤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의 본문을 차용했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중복되어 제시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서 중요한 모티브였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שיר המעלות)로 알려진 15 편의 시들이 시편 안에서 하나의 단위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다(시편 120-134).

3.1.2.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알리야

남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바벨론 제국을 붕괴시키고 고대 근동 전 지역을 장악한 세력은 페르시아 아키메네스 왕조였다. BC 538년 바벨론이 잡아왔던 포로민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발표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알리야를 열망했지만¹⁴ 포로기 70년간 예루살렘 성과 그 중심의 성전은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는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없었다. 알리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그 성전이 불타고 없었던 상황이었다. 예루살렘으로의 알리야가 재개된 것은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이후였다.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을 허용한 고레스 칙령은 확장된 의미의 알리야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남 유다 도시로의 귀환이었다. 구약성서는 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표현하면서 크게 두 개의 동사를 동원한다. 하나는 ‘돌아오다’라는 뜻의 שב [샤브]였고 다른 하나는 ‘올라오다’라는 뜻의 עלה [알라]였다:

에스라 2:1 וְאֵלֶּה בְּנֵי הַמְּדִינָה הָעֵלִים מִשְׁבֵּי הַגּוֹלָה... וְיָשׁוּבוּ לִירוּשָׁלַם וְיִהְיוּ אִישׁ לְעִירוֹ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올라와 예루살렘과 유다

¹⁴ 바빌론 유대 디아스포라의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은 시편의 노래를 통하여 잘 확인된다. 예로 시편 137편을 보라.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

느헤미야 8:17 וַיֵּשְׁבוּ כָל-הַקָּהָל הַשָּׂבִים מִן-הַשָּׂבִי סְכוּת וַיֵּשְׁבוּ בְּסֻכּוֹת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 구절들에 등장하는 동사 שב와 분사형 שבים [샤빔] (귀환자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의 유대인 귀환을 의미하는 שיבת ציון [쉬바트 짜온]이라는 관용어와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¹⁵ 그러나 바벨론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을 표현하는데 더 동원된 동사는 עלה [알라]이다:

느헤미야 12:1 וְאַלֶּה הַכֹּהֲנִים וְהַלְוִיִּם אֲשֶׁר עָלוּ עִם-זֶרְבָבָל כֹּהֵן-שָׂאֲלִיאֵל וַיֵּשׁוּעַ שָׂרִיָּה יִרְמְיָה עֶזְרָ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라 8:1 וְאַלֶּה רָאשֵׁי אֲבֹתֵיהֶם וְהַתִּיחָשִׁם הָעֲלִים עַמִּי בְּמַלְכוּת אֶרֶץחֲשִׁשְׁתָּא הַמֶּלֶךְ מִבָּבֶ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동사 עלה와 그 분사형 עולים [올림]이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의 이주 및 새로운 이주자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 עליה [알리야]와 עולים חדשים [올림 하다섬]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 순례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폭넓게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로 부상한다.

3.2. 알리야의 어원과 그 함의

알리야가 하나님 경배를 위한 예루살렘 순례의 협의적인 의미에서 고토 이스라엘로의 귀환과 정착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포로기 이전과 이후 시대의 구약성서 본문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알리야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는 다른 명사가 구약성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것은 같은 동사 עלה [알라]에서 나온 ‘번제(燔祭), burnt offering’를 의미하는 명사 עולה [올라]이다. 짐승을 통째로 불에 태워 공물로 바치는 제사인 עולה[올라]는 때로 עלה 동사의 사역형 העלה [헤엘라] (들어올리다)를 통하여 표현된다.

¹⁵ 이 표현은 시편 126편 1절에서 한 번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שיבת ציון)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레미야 14:12 כִּי יִצְמוּ אֵינֹנִי שְׁמַע אֶל-רִנָּתָם וְכִי יַעֲלוּ עָלַי וּמִנְחָה אֵינֹנִי רָצָם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창세기 22:2 וַיֹּאמֶר קַח-נָא אֶת-בְּנֶךְךָ אֶת-יִצְחָק דָּ אֶשְׁר-אַהֲבָתָ אֶת-יִצְחָק וְלֶךְ-דָּ אֶל-אֶרֶץ הַמֹּרְיָה וְהַעֲלֵהוּ שָׁם לְעֹלָ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알리야의 본래적 의미가 하나님 경배를 위한 예루살렘 순례였는데 그 순례가 궁극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문이었음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에서의 번제를 첫 번째로 연상시키는 것은 다른 아닌 창세기 22 장 본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 장소가 되었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기록이나 유대인들의 전승과 역사 인식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다. 예루살렘으로의 알리야는 솔로몬 성전 건축이후 제도화된 듯 보이지만 그곳을 향한 알리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후손들의 믿음을 상기하는 의식이었다.

4. 현대 갈룻과 알리야, 그 성서 언어적 의미의 조명

유대인들의 이산과 고토 귀환을 그들의 역사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대에 기록된 구약성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약성서에서 동원하고 있는 갈룻과 알리야는 그 어원과 형태에서 특정한 함의를 가진다. 추방을 뜻하는 갈룻은 유대민족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주어지는 여러가지 저주들 가운데 최악의 것이었다.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그들의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갈룻은 추방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갈룻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 의미(uncover)가 갈룻이라는 기본 동사의 명사적 형태와 연결되면서 추방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기가 됨을 함축하는 것을 구약성서 본문의 용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갈룻을 통하여 새로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음도 보았다. 그것은 본토로의 귀환이었다.

바빌론 포로기 이전의 알리야는 하나님 경배를 위한 예루살렘 순례를 의미했다. 포로기 이후의 알리야는 예루살렘 순례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을 구약성서 본문 용례들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순례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음도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를 통하여 확인했다.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알리야)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순례(알리야)를 위함이었고 그 순례는 제사를 위함이었다.

이에 따르자면 현대 알리야 운동은 궁극적으로 유대교 신앙 행위로 규정된다. 잘못 역시 궁극적으로 여호와/야의 하나님 신앙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할 현상이다. 잘못이 피동적 유대교 신앙 행위라면 알리야는 능동적 유대교 신앙 행위로 이해된다. 그리고 잘못과 알리야는 반비례하는 상호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나가는 말

잘못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전제하고 나타난 현상이다. 유대인들은 “אין לנו ארץ אחרת” [엔 라누 에레쯔 아헤렛](우리에게 다른 땅은 없다)이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유대인 문제로 고민하던 유럽사회가 한 때 유대인들에게 유대 국가 건설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성사되지 못했다. 고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 국가 건설을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근 이천 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던 초기 유대 이민자들이 했던 일은 오히려 상징적이었다. 지중해 해변의 모래 땅에 새로운 도시 텔 아비브(תל אביב)를 세운 것이다. 그것은 바빌론으로 끌려 갔던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이천 오백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명이었다. 유다 포로들이 정착해야만 했던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다. 자주 홍수가 나는 암울한 지역이었고 텔 아비브는 그 당대 아카드어로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이었다. 유대인들은 잘못의 텔 아비브를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웠다. 히브리어로 텔 아비브는 '봄의 언덕'을 의미한다.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이 둘러 사는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 경제의 중심지로 실질적인 국가의 수도다. 오늘날의 텔 아비브는 잘못과 알리야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상징이다. 1948년 5월 14일 낭독된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잘못의 집합[קיבוץ גלויות] 키부츠 갈루웃]이라고 선언한다. 이천 오백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던 잘못은 오늘날의 알리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더이상 이방 땅에 남아있지 않는 그 날, 잘못이 끝나고 알리야가 끝나는 그 역사의 날은 과연 올 것인가?

쿠웨이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 소설 속 장소 선정의 상관관계: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을 중심으로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쿠웨이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 소설 속 장소 선정의 상관 관계”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을 중심으로-

중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문학분과)

발표자: 백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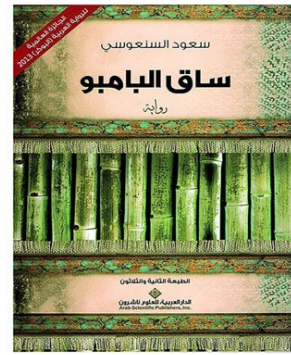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차례 الفهرس

- 1.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 & 작가 소개
- 2. 쿠웨이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
- 3. 소설 속 장소의 기능 & 장소 선정의 중요성
- 4.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에 드러난 장소 활용 예시
- 5. 결론

1. 『대나무가 자라는 땅』 رواية ساق البامبو

- 쿠웨이트 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점 비판
(사회의 폐쇄성, 타자에 대한 거부→ 작가의 문제의식)
- 쿠웨이트-필리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의(이싸/호제)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자전적 형식)
- 국가적 정체성 (쿠웨이트 vs 필리핀)
종교적 정체성 (이슬람 vs 기독교)



본 소설의 파급력

- 아랍 대학의 각종 아랍 문학 관련 수업에서 다뤄짐
- 이주 노동자, 혼혈아의 정체성, 비문 문제 등에 관한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공개적으로 다뤄짐
- 영어, 페르시아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한국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됨
- 2016년 걸프 tv 드라마로 제작



쿠웨이트 작가 ‘쑤우드 싸누씨’ سعود السنعوسي



- 젊은 쿠웨이트 언론인, 소설가 (1981년생)
-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 으로 2013년 국제아랍소설상 대상 수상
- 단편소설 『분재와 노인』 (알아라비 매거진, bbc 주최 단편 최우수상 수상)
- 거울의 죄수 (2010)
- 대나무가 자라는 땅 (2012)
- 움무 히싸네 쥐들 (2015)
- 집 비둘기 (2017)
- 살리하의 낙타 (2019)



주요 등장 인물

호세(이싸): 주인공
쿠웨이트인 아버지와
필리핀 가정부 출신인
조세핀의 아들

조세핀: 필리핀인으로
쿠웨이트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라쉬드와 사랑에
빠짐

라쉬드: 따루프가(家)의
외아들, 언론인이자 작가,
이라크 침공시
저항군으로 순교

가싼: 라쉬드의 친구,
호세를 돕는 역할을 함,
비둔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함

가니마: 호세의
할머니이자 라쉬드의
어머니

카울라: 호세의 배다른
여동생, 호세의 든든한
조력자

소설 구성

역자소개/후기

1장: 이싸, 출생 전

2장: 이싸, 출생 후

3장: 이싸, 첫 번째 방황

4장: 이싸, 두 번째 방황

5장: 이싸, 조국의 변두리에서

마지막 장: 이싸, 뒤를 돌아보다

2. 쿠웨이트 사회의 정체성 문제 إشكالية الهوية في المجتمع الكويتي

혼혈 자녀
(아시아 이주
노동자)
→ 두 이름
두 국적
종교, 문화,
이름 사이에서
자아 정체성의
혼란

비둔 문제

순니 & 쉬아의
갈등

쿠웨이트의 아시아 이주 노동자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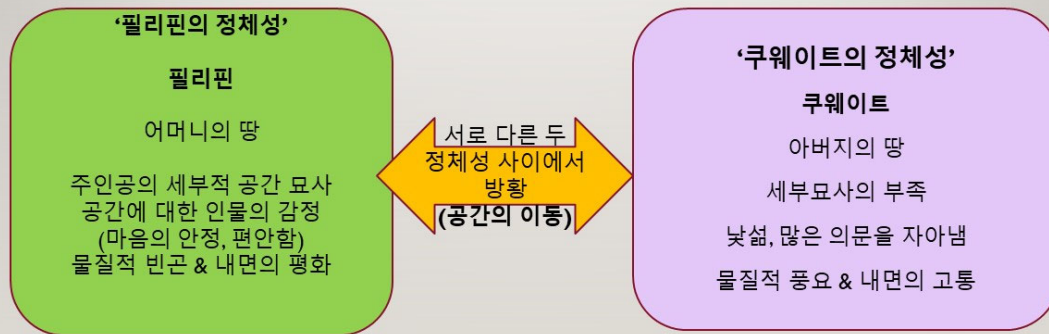
- 20세기 중반 걸프(아라비아반도) 국가들의 상황:
서구 열강의로부터의 독립, 석유생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 인구유입의 폭발적 증가 (아랍, 아시아 계열)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 인구 구성의 기형적 변화
→ (국민이 전체 인구의 14%~33%만 차지)
- 각종 사회적 이슈 문제 등장

3. 소설 속 장소의 기능 & 공간(장소) 선택의 중요성

الفضاء المكاني

- 공간: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
- 소설의 공간 설정: 이야기 자체에 실재성을 부여
- 이야기의 흐름을 돕고 분위기를 살려줌
- 인물과 그의 행동에 현실감을 부여
-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

4. 소설 『대나무가 자라는 땅』에 드러난 공간 활용 예시 4-1) 배경 설정 (공간의 대비와 그 의미)



4-2) 공간의 이동과 그 의미

- 공간의 이동이 주는 효과: 인물이 새로운 세상, 문화, 지식, 타인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
- 『대나무가 자라는 땅』에서 공간의 이동이 주는 상징성
→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
- 같은 공간에 대한 주인공의 양가적 감정: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유발시킴
- 왜 ‘대나무’인가?

4-3) 공간의 상징성

- 필리핀 & 쿠웨이트
- 집 & 방 (별채) (الغرفة/الملحق)
 - 같은 공간에 대한 다양한 묘사, 해석 가능
 - 소설의 흐름에 따른 공간이 지닌 의미의 변화
- 감옥 (السجن)

5. 결론 الخاتمة

- 소설 속 공간 설정은 단순히 인물 활동의 배경 및 무대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라
 -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 및 주제를 반영하기 위해 정교하게 선정, 가공된 문학적 장치이자 서사적 기법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소설『대나무가 자라는 땅』역시 주인공 이싸(호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대주제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공간 선정 및 활용 기법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현대 터키어의 논항 교체에 대한 소고: 동사 *doldur-* 를 중심으로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

1. 처소논항교체

동사 및 형용사와 관련된 연구 중 논항교체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논항교체는 하나의 술어¹⁾가 둘 이상의 통사 구문에 쓰이면서 서로 다른 논항구조를 가지는 현상을 말한다. 영어에서 논항 교체 유형²⁾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지는데, 이러한 교체 현상은 비단, 영어만이 아닌 적어도 전 세계 24개의 다양한 언어에서 유형학적으로 입증되어지며(Levin 2006:2) 그 특성들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논항 교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통사론적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연결이론(linking theory)에 의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논항 교체 현상들을 단순히 통사론적인 현상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어휘부 내에서 각 어휘 항목의 의미로서 기술하려는 시도(Pustejovsky 1991, 1995; Levin&Rappaport 1996; 남승호 2000, 2002, 2007)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처소 논항 교체(Locative Alternations: LA)³⁾는 영어의 *load*, *spray*, *fill*, *cover*등과 같이 어떠한 개체가 행위자의 동작에 의하여 새로운 위치 혹은 목표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처소 논항 교체 술어들, 즉

1) 술어의 논항 구조의 의미역 분류는 다음과 같다.

행동주Agent, 피동주patient, 대상 theme, 경험주experiencer, 도구instrument, 처소location, 착점goal, 기점source, 방향direction, 경로 route, 수혜자benefactive, 자극stimulus, 원인cause, 자격 qualification, 비교기준 criterion, 동반자 companion

2) 논항교체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i) 여격 교체(Dative alternation) a. Terry gave the newspaper to Kim. b. Terry gave Kim the newspaper.

(동일유형 예: bring, hand, loan, read, sell, send, take, teach, write, ...)

(ii) 처소 교체(Locative alternation) a. Devon smeared butter on the toast. b. Devon smeared the toast with butter. (동일 유형예: cram, pack, pile, spray, spread, sprinkle, stuff, ...) c. Kerry hit the stick against the fence. d. Kerry hit the fence with the stick. (동일유형 예: beat, knock, pound, rap, slap, tap, thump, ...) e.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f. The garden is swarming with bees.

(iii) 기도 교체(Conative alternation): a. Pat hit the door. b. Pat hit at the door.

(iv) 인과 교체(Causative alternation) a. The clumsy waiter broke a whole tray of glasses. b. A whole tray of glasses broke.

3) 처소교체현상(Locative alternation)은 Fillmore(1968)가 spray-load 동사를 활용한 예문을 제시한 이후, 'spray-load alternation' 혹은 'Figure/ground alternation(Pinker:1989)' 라고도 불리어진다.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서 나타나며 그 의미 유형은 언어별, 각각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진다(Pinker 1989:126-127; Levin: 1993; Dowty:2000; 한국어의 경우: 우형식:1990; 유현경: 1998; 남승호: 2001, 2007; 안명철: 2013)

본고에서는 *doldurmak*(채우다)과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처소 논항 교체 술어들이 문장 내에서 그 성질을 달리해도 동일하게 논항 교체 현상, 같은 상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2. *doldurmak*(채우다)

터키어의 *doldurmak*(채우다)은 자동사 *dolmak*(차다)에 사동접사-*DUr*가 후행되며 파생되는 사동 동사이며, *doldurmak*(채우다)의 처소 논항 교체의 구체적인 현상은 다음 예와 같다.

1. a. Elif kitapları rafa doldurdu.
Elif-Ø Kitaplar-ı Raf-a dol-dur-du-Ø
엘리프-NOM 책-PL-ACC 선반-DAT채우-DUr-PST-3SG
엘리프는 책들을 선반에 채웠다.
- b. Elif kitaplarla rafi doldurdu.
Elif Kitap-lar-la Raf-ı doldur-du-m.
Elif-Ø 책-PL-INST 선반-ACC 채우-PST-1PS
엘리프는 책들로 선반을 채웠다.
- c. #Elif rafi kitaplarla doldurdu. Ama rafta hala boş yer kaldı.
선반을 책들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선반에 아직도 빈 공간이 남았다.

사동동사 *doldurmak*(채우다)은 한국어조사 ~에, ~(으)로, ~에게의 의미에 해당하는 방향격조사(Yönelme Eki) +(y)A를 취한다. *doldurmak*(채우다)는 ‘행동주-대상-착점’, ‘행동주-착점-대상’의 3개의 논항으로 문장이 구성되며, 논항교체 과정에서 착점이 대상으로, 착점이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실세계의 사건을 상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

(1a)는 선반에 책이 몇 권이 되던 상관없으며, 선반에 놓여 지는 물건이 꽃병 등 다른 물건이 아닌 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하지만 (1b)의 경우 선반 전체에 책이 뽁뽁이 꽂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은 부가적인 설명 (1c)를 (1b)에 후술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b)의 문맥상의 의미로 선반 전체에 이미 책이 뽁뽁이 꽂혀 있는 상태인데, 화자는 선반을 바라보며 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는 옳으나 의미적이나 문맥적으로는 어색하거나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1b)와 같은 현상, 특정 대상이 가리키는 장소 자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음⁴⁾(Holistic Effect)을 의미하는 것을 대상화(Themalization)이라 지칭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타동사 구문에서 장소 자체가 대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동사의 타동성(Transitivity)에도 영향 받음(Effected)의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된다(연재훈, 1993).

Levin&Rappaport(1988)는 이러한 처소 논항 교체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 사이의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어휘개념구조(LCS: Lexical conceptual Structure)와 서술-논항구조(PAS: Predicate-Argument Structure)를 도입한다. 사동동사 *doldurmak*(채우다)가 취하는 의미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Doldurmak(채우다): <Agent(행동주), Theme(대상), Goal(착점)>

doldurmak(채우다)의 의미역은 통사적인 PAS(서술-논항구조: Predicate-Argument Structure)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위의 *doldurmak*(채우다)의 분석을 토대로 PAS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논항구조에 대한 각각의 변이형 사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3. a. Elif **kitapları** rafa **doldurdu**. (장소의 변화)

PAS= doldur-: x<z(대상)ACC y(착점)YÖN>

b. Elif kitaplarla **rafı** **doldurdu**. (상태의 변화)

PAS= doldur-: x<z(대상) ile y(착점)ACC>

Kitap(책)과 Raf(선반)은 각각 문장에서 대격으로 실현되나 그 역할은 다르다.

대상논항으로 작용하는 (3a)kitap(책)의 경우 단순한 이동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처소 변화의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장의 상적 의미와 연결되지 못하지만, (3b)착점논항 raf(선반)의 경우 완전히 영향을 받는 상태로의 변화, 즉 책들에 의해서 선반이 모든 책들로 메워지는 결과를 함의하는데 때문에 사건의 시간적인 끝점 즉 목표를 나타내는 논항 의미를 가지므로 완료라는 상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항 교체 구조가 처소 논항 교체 술어들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술어 분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술어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승호(2007: 71)은 언어마다 각각 다른 어휘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기 어렵다 지적한다. 즉, 유의어나 반의어가 항상 동일한 격구조 및 사건 구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술어적 특징은 논항 교체의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doldurmak*과 같이 행위자가 대상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표현하는 *dökmek*(담다, 채우다, 붓다), *koymak*(놓다, 넣다)의 경우 *doldurmak*(채우다)과 서로

4) 이러한 전체적 효과를 인지언어학적 접근에서는 전경-배경 이론으로 설명할 수있다.

유의관계에 있으나 *doldurmak*에서 나타나는 전체 효과를 증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언어마다 다른 어휘화가 이루어져 각기 다른 격교체현상 및 사건 구조를 가지지만, (2)의 영어 *pour*는 터키어의 *dökmek*(담다, 채우다, 붓다)과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영어의 *fill*의 경우 터키어 *doldurmak*(채우다)와 달리 격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다음(2), (3) 예는 Nakipoğlu, 2009: 1263)에서 참조하였다.

4.
 - a. Fiil the glass with water
 - b. *Fill water into the glass (fill 동사의 경우 into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 c. Bardağ-a su doldur
 컵-DAT 물 채우-IMP
 - d. Bardağ-ı su-yla doldur
 -ACC 물-INST 채우-IMP

5.
 - a. Pour water into the glass
 - b. *Pour the glass with water
 - c. Bardağ-a su dök/koy
 컵-DAT 물 붓-/담-IMP
 - d. 5)*bardağ-ı su-yla dök/koy
 컵-ACC 물-INST 붓-/담-IMP

6.
 - a. Erdem bardağ-a su döktü/koydu.
 - b. *Erdem bardağı suyla döktü/koydu.

위(4)에서 ‘*koymak*(담다)’는 ‘x(Erdem)-NOM y(su)-ACC z(bardak)-YÖN’ 기본 유형만을 가지며 교체 현상에 제약이 걸리지만, 예(1)의 ‘*doldurmak*(채우다)’는 ‘x-NOM y-ACC z-YÖN’ 와 ‘x-NOM z-ACC y-YÖN’ 유형과 서로 교체한다.

특히 *doldurmak*(채우다)가 보이는 격교체 현상은 영어의 교체 동사 *load*와 비슷하게 나타나며, 처소나 용기등이 대상화(thematize)가 되어 화자의 의도 혹은 상적인 의미로서 가득 차게 한다는 인상이 달라지는 현상임을 보인다. 게다가 상적 의미로서 특별한 시제 혹은 상적 어미 사용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5) 한국어 해석으로 ‘컵을 물로 담아라’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터키어의 경우 접사의 활용이 한국어보다 더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터키어로는 비문이 된다.

사건구조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술어가 내포하고 있는 하위 사건들을 표시할 때, 그 사건이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유형이 달라지는데(남승호 2007: 73), 이는 서로 다른 논항구조를 가지며 논항 교체 현상을 나타내는 *doldurmak*(채우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어지는 현상이다.

3. *dolmak*(차다) 와 *doldurulmak*(채워지다)

앞에서 관찰된 *doldurmak*(채우다)의 격교체 유형은 *dol-*을 어근으로 하는 자동사 *dolmak*(차다)와 *doldurulmak*(채워지다)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doldurmak*(채우다)는 *dolmak*(차다)라는 자동사에 사동접사 -DUr를 붙여 파생된 사동동사이다. *dolmak*(차다)의 격교체 현상은 아래 예(8)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a. Oda sigara dumanıyla dolmuş/doldu.
PAS= dol-: <x(착점)NOM y(대상)ile>

- b. Odaya sigara dumanı dolmuş/doldu.
PAS= dol-: <x(착점)YÖN y(대상)Ø>

dolmak(차다)의 격교체 현상은 사동동사 *doldurmak*(채우다)에 피동접사 -(U)l을 붙여 파생된 피동동사인 *doldurulmak*(채워지다)에서도 동일 논항과 표면적 구조를 가진다. 사동문에서의 대상 논항 *kitap*(책)은 아래 예(9) 피동문에서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상화현상과 함께 피동문에서 격교체는 보존된다는 주장 역시 성립한다.

9. a. Kitaplar rafa melike tarafından dolduruldu.
b. Raf (melike tarafından) kitaplarla dolduruldu.

하지만 동일한 논항과 표면구조를 가진 *doldurmak*(채우다)와 *dolmak*(차다)는 상적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피동동사는 자동사에서 사동으로 파생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동작성이 보다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대개 과정+상태 해석을 통해 완성 동사로서 사용이 되어 진다(김윤신, 2001: 139). 피동동사 채워지다는 함께 사용되는 어미에 따라 때로는 미완료적(Atelic)인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듯 피동동사와 사동동사의 사용에 있어 시제 혹은 상 어미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dolmak*(차다)에는 (10)과 같이 터키어의 현재시제 혹은 진행상이라 여겨지는 -yor 혹은 -mAktA 에서 그 쓰임이 제한된다. *dolmak*(차다)은 문장내에서 이미 어떠한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 혹은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10. a. *Oda sigara dumanıyla doluyor/dolmakta.
방이 담배연기로 차고 있다.
b. *Odaya sigara dumanı doluyor/dolmakta..
방에 담배연기가 차고 있다.

4. 결론

본고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doldurulmak(채워지다)와 dolmak(차다)은 사동 동사인 doldurmak(채우다) 같은 논항과 같은 격교체구조를 허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사건 구조 일부만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항교체현상 연구와 더불어 어순이 비교적 유동적인 터키어에서의 의미역들의 순서에 대한 초점적 의미 및 처소 교체 현상에 미치는 영향, 피동이나 사동을 실현하는 술어들의 논항 교체 현상 등 터키어 관점에서 어휘 의미론적 연구 및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윤신(2001).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남승호. (2000). 한국어 이동동사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이정민 외 (2000) 의미 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 남승호. (2002). 처소논항 교체의 의미론: 자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8(1), 295-318.
- 남승호. (2007). 한국어술어의사건구조와논항구조 (Vol. 57).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명철. (2013). 논항 교체 구문의 의미론- [처소]-[대상] 구문을 중심으로 -. 國語學, 68, 75-98.
- 연재훈. (1993). The degree of transitivity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 <어학연구> 29.1: 107-13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우형식. 1990. <국어 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한국문화사.
- Dowty, D. (2000). The Garden Swarms with Bees' and the Fallacy of 'Argument Alternation.' In Y. Ravin and C. Leacock eds. (2000) Polysemy. Oxford University Press. Investigation.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B. (2006). English object alternations: A unified account. Unpublished ms.,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B. and M. Rappaport Hovav. (1996). Lexical Semantics and Syntactic Structure.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 Nakipoğlu, M. (2009). The semantics of the Turkish accusative marked definites and the relation between prosodic structure and information structure. Lingua, 119(9), 1253-1280.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Fi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Emmon Bach and Rober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1-8.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Pustejovsky, J.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47-81.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Cambridge. Levin, B. (1988). What to do with theta-roles. In Wendy, W. (ed.), Syntax and Semantics 21, 7-36. New York, NY: Academic Press

한국어 화자의 페르시아어 발음 오류 분석: 자음을 중심으로

이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화자의 페르시아어 발음 오류 분석 - 자음을 중심으로



이세은
중등언어 · 문화학과 박사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목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4. 자음 체계 대조
5. 발음 오류 실험 및 분석
6. 결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 화자 대상 페르시아어 발음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적 분석 연구 필요성

한국인이 페르시아어 발음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분석하여 기본적 정보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음 오류 유형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함.

2. 선행 연구

한국

한국어 화자들의 다양한 언어 발음 오류 분석 연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음운현상 발음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됨. 이소영(2009)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분절음 및 음운현상 발음 오류를 분석함.

이란

페르시아어와 다른 언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연구하여 발음 교육 항목을 선정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페르시아어 발음 오류 분석 연구는 드물게 수행됨.

→ 한국어와 페르시아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하여 오류를 예측하고 한국어 화자의 페르시아어 발음 인지 및 구사 오류 양상을 비교하였음.

2. 배경 - 난이도 위계 모형

Prator(1967)의 난이도 위계 모형

난이도		설명
0단계	전이 (Transfer)	L1과 L2의 항목에 차이가 없는 경우
1단계	융합 (Coalescence)	L1의 두 항목이 L2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경우
2단계	과소구별 (Underdifferentiation)	L1의 항목이 L2에 없는 경우
3단계	재해석 (Reinterpretation)	L1의 항목이 L2에서 다른 형태나 분포로 나타나는 경우
4단계	과잉구별 (Overdifferentiation)	L1에 없는 항목이 L2에 존재하는 경우
5단계	분리 (Split)	L1의 한 항목이 L2에서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

3. 연구 방법

언어 대조 분석

1. 한국어와 페르시아어의 자음 체계 대조
2. 프라토(Prator, 1967)의 난이도 모형에 따라 한국어 화자의 페르시아어 발음 항목의 난이도를 예측
3.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발음 인지 및 구사 테스트 설계



발음 인지 및 구사 테스트와 분석

1. 발음 인지 및 구사 테스트 실시
2. 테스트 분석
3. 음성 파일 간략전사
4. 페르시아어 화자 2명과 오류 확인
5. 각 항목의 오류율 분석
6. 오류 경향성과 원인 분석

3. 연구 방법 –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 분류

숙달도	인원	나이	학습 기간	체류 기간
초급	7명	20~24세	14~24개월	없음
중급	12명	22~27세	36~60개월	6~12개월
고급	3명	28~35세	60~72개월	12~30개월

실험 참가자와 숙달도 분류

실험 참가자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 · 이란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22명으로 구성됨. 학습자들 대부분 FLEX 페르시아어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 기간과 이란 어학연수 등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초급과 중급으로 분류하고, 졸업 이후 이란에서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을 고급으로 분류 분류함.

4. 한국어 자음 체계

한국어 자음 체계(허용 · 김선정 2007)

조음위치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조음방법						
파열음	평음	ㅂ /p/	ㄷ /t/		ㄱ /k/	
	경음	ㅃ /pˈ/	ㄸ /tˈ/		ㄲ /kˈ/	
	격음	ㅍ /pʰ/	ㅌ /tʰ/		ㅋ /kʰ/	
마찰음	평음		ㅅ /s/			ㅎ /h/
	경음		ㅆ /sˈ/			
	격음					
파찰음	평음			ㅈ /t͡ɕ/		
	경음			ㅊ /t͡ɕˈ/		
	격음			ㅊ /t͡ɕʰ/		
비음		ㅁ /m/	ㄴ /n/		ㅇ /ŋ/	
유음			ㄹ /l/			

4. 페르시아어 자음 체계

페르시아어 자음 체계(Golnaz Modarresi Ghavami 2017)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성문음
파열음	b p		d t			ʃ c		g	ʔ
비음	m			n					
마찰음		v f		z s	ʒ ʃ		x		h
파찰음					ɖ ʈ				
중앙접근음				ɹ		j			
설측접근음				l					

4. 한국어-페르시아어 자음 체계 대조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성문음
파찰음	유성무기연음	b		d			ʃ		g	
	무성무기연음	p ㅂ		t	ㄷ		c	ㄱ		ʔ
	무성무기경음	ㅃ			ㄸ			ㄲ		
	무성유기경음	ㅍ			ㅌ			ㅋ		
마찰음	유성무기연음		v		z	ʒ				
	무성무기연음		f		s ㅅ	ʃ		x		h ㅎ
	무성무기경음				ㅆ					
파찰음	유성무기연음					dʒ				
	무성무기연음					tʃ ㅈ				
	무성무기경음					ㅊ				
	무성유기경음					ㅊ				
비음		m ㅁ			n ㄴ			ŋ		
중앙접근음					ɹ		j			
설측접근음					l ㄹ					


4. 자음 체계 대조 – 난이도 예측

		한국어	페르시아어
0단계	전이	ㄴ	/n/
		ㅁ	/m/
		∅	/j/
1단계	융합	∅	∅
2단계	미분화	ㅇ	∅
3단계	재해석	ㅅ, ㅆ	/s/, /ʃ/
		ㅂ, ㅃ, ㅍ	/b/, /p/
		ㄷ, ㄸ, ㅌ	/d/, /t/
		ㄱ, ㄲ, ㅋ	/c/, /ɟ/
		ㅈ, ㅊ, ㅊ	/dʒ/, /tʃ/
4단계	과분화	∅	/g/
		∅	/ŋ/
		∅	/v/
		∅	/f/
		∅	/z/
		∅	/ʒ/
5단계	분리	ㄹ	/ɹ/, /l/
		ㅎ	/h/, /x/

5. 설계 – 발음 인지 테스트

발음 인지 실험 문항

항목	어휘	항목	어휘
/b/-/p/	بو-پو، بول-پول، بیا-پیا، مایی-ماپی	/ʔ/-/g/	عا-غا، عال-غال، عیو-غیو، لاعی-لاغی
/d/-/t/	دا-تا، دُس-تُس، دیا-تیا، مادی-ماتی	/f/-/v/	فا-وا، فال-وال، فیو-ویو، لافا-لاوا
/c/-/j/	کی-گی، کمی-گمی، کیا-گیا، میکا-میگا	/z/-/ʒ/	زو-ژو، زوم-ژوم، زی-ژیا، گاز-گازا
/s/-/ʃ/	سو-شو، سام-شام، سیا-شیا، لاسا-لاشا	/h/-/x/	حا-خا، حان-خان، حیو-خیو، ماحو-ماخو
/dʒ/-/tʃ/	جا-چا، جول-چول، جیو-چیو، ماجی-ماچی	/ɹ/-/l/	رو-لو، رول-لول، ریو-لیو، لیری-لیلی

듣기 평가 형식으로 각 문항을 2번씩 들려주고 정답 표시를 하도록 진행 

5. 설계 – 발음 구사 테스트

발음 구사 실험 어휘

항목	어휘	항목	어휘	항목	어휘	항목	어휘
/b/	بوم، تاب	/ʒ/	ژاپن، پاساژ	/h/	حرف، کاه	/f/	فایل، برف
/p/	پول، چپ	/s/	سرد، آرس	/x/	خرس، کاخ	/c/	کام، سوسک
/t/	طلا، داشت	/ʃ/	شال، شوش	/d/	داری، دارد	/j/	گام، سوگ
/dʒ/	جلد، حاج	/ʔ/	عرق، عقاب	/ɹ/	رامین، باران	/l/	لامپ، لاله
/tʃ/	چند، کوچ	/g/	قاب، غرق	/z/	زمین، ساز	/v/	والدین، سر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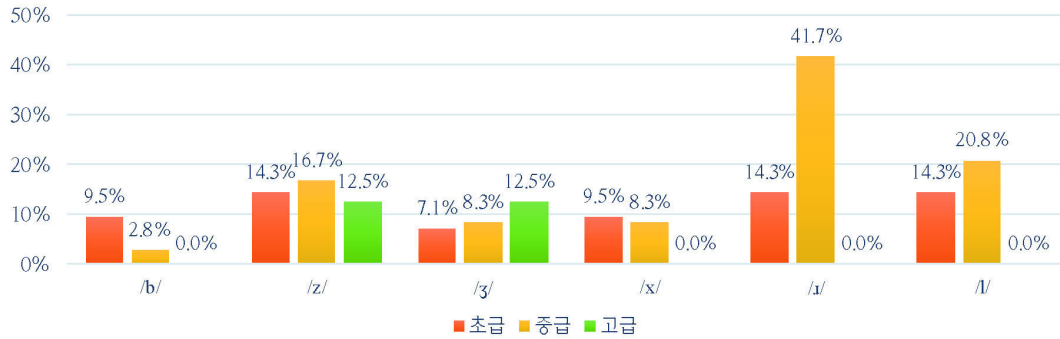
발음 구사 실험 문장

- دَقْتَرِ نَزْدِیکِ آرژانتین هَسْتُ.	- پِکَشْنِبِه بَهْتَرِ اَسْتُ.
- شِعِرِ عَاشِقَانِه رَا دُوسْتُ دَارَم.	- خَانِمِ سَعِیدِی خانهدار اَسْتُ.
- اِین جَشْنَوَارِه جِهَانِی شُد.	- سَعِید وَ وَحِید فُرُوشَنْدِه‌ی مَوَادِ غِذَائِی هَسْتَنْد.
- اِین گُل خِیَلِی قَشَنگ وَ زَیْبَا اَسْتُ.	- دَانِشْگَاهِ دَرِ پَایِیزِ شَلُوغِ اَسْتُ.
- اَنجَا چَنْد گِلِیمِ کُوجَک وَ قَالِی بُزْرَگ هَسْتُ.	- اِین سَاخْتِمَان قَدِیمِی اَسْتُ.
- فَایل وَ پِیام رَا فِرِسْتَادَم.	- شِرْکَتِ مَن دَرِ غَرَبِ اِصْفَهان هَسْتُ.
- پَای چَپ مَن قَرْمَز شُد.	- ژاپَنی نِیستَم، کَرَمایِ هَسْتَم.

테스트 시작 전 미리 어휘와 문장을 읽어본 후 2번씩 읽는 방식으로 진행

5. 분석 – 발음 인지 테스트

발음 인지 테스트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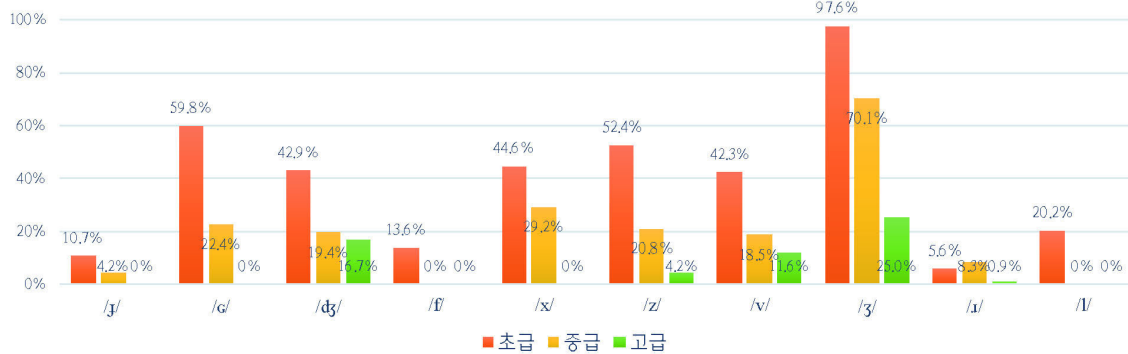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

	항목
초급	/d/, /t/, /c/, /ʒ/, /ʒ/, /g/, /s/, /ʃ/, /v/, /f/, /tʃ/
중급	/d/, /t/, /c/, /ʒ/, /ʒ/, /g/, /s/, /ʃ/, /v/, /f/, /tʃ/
고급	/d/, /t/, /c/, /ʒ/, /ʒ/, /g/, /s/, /ʃ/, /v/, /f/, /tʃ/, /dʒ/, /b/, /p/, /ɹ/, /l/, /h/, /x/

5. 분석 – 발음 구사 테스트

발음 구사 테스트 오류율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

	항목
초급	/b/, /p/, /d/, /c/, /ʒ/, /tʃ/, /h/, /s/, /ʃ/, /t/
중급	/b/, /p/, /d/, /c/, /ʒ/, /tʃ/, /h/, /s/, /ʃ/, /t/, /f/, /l/
고급	/b/, /p/, /d/, /c/, /ʒ/, /tʃ/, /h/, /s/, /ʃ/, /t/, /f/, /l/, /x/, /j/, /g/

5. 분석 – 발음 구사 테스트

/l/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28.6%	0%	0%
문장	11.9%	0%	0%
평균	20.3%	0%	0%

/ɹ/ 구사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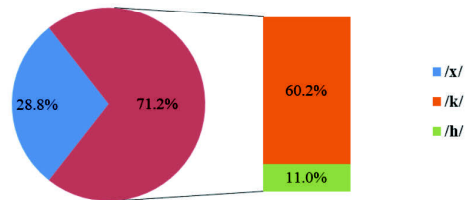
	초급	중급	고급
단어	7.1%	12.5%	0%
문장	4%	4.2%	1.9%
평균	5.6%	8.3%	0.9%

/x/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28.6%	0%	0%
문장	11.9%	0%	0%
평균	20.3%	0%	0%



/x/ 오류 양상



5. 분석 – 발음 구사 테스트

/z/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61.9%	27.8%	0%
문장	42.9%	13.9%	4.2%
평균	52.4%	20.8%	2.1%

/dʒ/ 구사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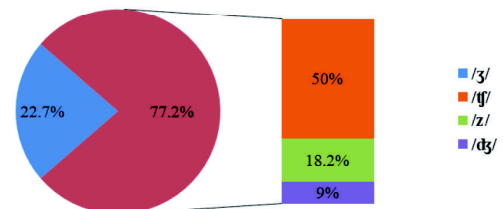
	초급	중급	고급
단어	47.6%	16.7%	0%
문장	38.1%	22.2%	0%
평균	42.9%	19.4%	0%

/ʒ/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95.2%	69.4%	0%
문장	100%	70.8%	0%
평균	97.6%	70.1%	0%



/ʒ/ 오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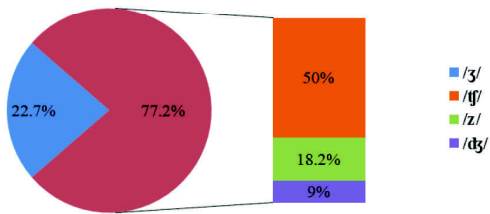
5. 분석 – 발음 구사 테스트

/g/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42.9%	8.3%	0%
문장	76.8%	36.5%	0%
평균	59.8%	22.4%	0%



/g/ 오류 양상



/j/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14.3%	4.2%	0%
문장	7.1%	4.2%	0%
평균	10.7%	4.2%	0%

5. 분석 – 발음 구사 테스트

/f/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7.1%	0%	0%
문장	20%	0%	0%
평균	13.6%	0%	0%

/v/ 구사 오류율

	초급	중급	고급
단어	50%	25%	0%
문장	34.7%	11.9%	0%
평균	42.3%	18.5%	0%

6. 결론 – 오류 경향성

인지 테스트 경향성 순위

	항목	경향성	예측 난이도
1	/ɹ/	24.4%	5단계
2	/ʒ/	18.9%	4단계
3	/z/	17.8%	4단계
4	/l/	17.2%	5단계
5	/x/	8.9%	5단계
6	/b/	5.1%	3단계

경향성 값 = 초급/중급 오류율의 기하평균 값
 * 왜곡을 피하기 위해 표본 수가 부족한 고급
 오류율을 제외하였고, 5% 미만인 경우
 산술평균으로 계산

구사 테스트 경향성 순위

	항목	경향성	예측 난이도
1	/ʒ/	82.7%	4단계
2	/v/	36.6%	4단계
3	/dʒ/	36.1%	3단계
4	/g/	33.0%	4단계
5	/z/	28.9%	4단계
6	/x/	28.0%	5단계
7	/ɹ/	6.8%	5단계
8	/ʃ/	6.7%	3단계
9	/f/	4.5%	4단계
10	/l/	2.8%	5단계

6. 결론 – 오류 원인

인지 테스트

	자음 수	오류 경향성 비중
파열음	8	5.5%
마찰음	8	49.4%
무성음	10	28.9%
유성음	12	71.1%

구사 테스트

	자음 수	오류 경향성 비중
파열음	8	14.9%
마찰음	8	67.9%
무성음	10	23.1%
유성음	12	76.9%

감사합니다